

제26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세계유산이 되다 |

# 제26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세계유산이 되다 |

## 교 | 육 | 개 | 요

- 기 간 : 2023. 10. 25. ~ 11. 29. 매주 수, 14:00 ~ 16:00(2시간)
- 횟 수 : 총 6회
- 장 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 | 의 | 일 | 정

회차	일자	주제 및 내용(안)	강사
개강 및 인사말			
1	10.25. (수)	가야 고고학 특강	김세기 대구한의대학교 명예교수
2	11.1. (수)	고대 동아시아 가야연맹을 실증하는 '가야고분군'	하승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조사연구실장
3	11.8. (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의 문화적 의미	주경미 동양미술연구소 소장
4	11.15. (수)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벽화에 담긴 철학적 세계관	최종택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
5	11.22. (수)	백제의 세계유산	이귀영 백제세계유산센터장
6	11.29. (수)	세계유산으로 본 유럽의 선사시대	유용욱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종강	

\* 강사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가야 고고학 특강 .....	7
2. 고대 동아시아 가야연맹을 실증하는 ‘가야고분군’ .....	33
3. 유네스코 세계유산 석굴암과 불국사의 문화적 의의 .....	55
4. 세계유산 고구려 고분벽화에 담긴 철학적 세계관 .....	79
5. 백제의 세계유산 .....	107
6. 세계유산으로 본 유럽의 선사시대 .....	135

제26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세계유산이 되다 |

Part\_1

가야 고고학 특강

김세기

대구한의대학교 명예교수

## I. 머리말

2023년 9월 김해 대성동고분을 비롯한 7개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되었다. 그동안 10여년간 각 지자체와 등재추진단은 물론 가야연구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였다. 이로써 가야는 ‘신비의 왕국’이라거나 ‘잃어버린 가야’를 벗어나 세계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다.

1945년 광복이후 가야고고학은 거의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식민지 시절 가야고고학은 임나일본부설을 증명하려는 일본학자들의 관심 속에서 가야 여러 지역 고분발굴을 통하여 일본유물을 찾는 수준이었고, 문헌으로는 『일본서기』의 가야 관련 기록을 확인하려는 연구일색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광복이후에도 가야사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일본서기』 내용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인식이 팽배하였으므로 가야사를 애써 외면하려는 학계 분위기는 어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1971년의 공주 무령왕릉 발굴과 1973년 경주 천마총과 황남대총의 발굴로 백제, 신라문화의 우수성과 위대함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가야는 더욱 학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백제, 신라고분 발굴이 대단한 고고학적 성과를 가져오자 1970년대 후반, 정부의 문화재보존, 복원정책은 가야고분군 정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가야 중심고분군인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고총 봉분을 복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977년 12월 왕릉급 고분인 고령 지산동 44, 45호분을 발굴

조사하게 되면서 비로소 가야고고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고분발굴은 가야고고학사에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발굴이었다. 44호분에서는 중앙에 3기의 석실과 이를 둘러싼 32기의 순장곽이 확인되었고, 45호분은 2기의 석실과 11기의 순장곽을 가진 다곽분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고분에서 확실한 순장묘를 확인하여 세간의 관심을 일으키고 가야를 크게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다음해인 1978년에 고령 지산동 32~35호분을 발굴조사 하였는데, 여기서 대가야 금동관과 갑옷, 투구 일습이 출토되어 가야문화가 신라, 백제문화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이었음을 증명하게 되었다. 또한 여기서도 주석실 외에 1기의 순장곽을 가진 묘제가 확인됨으로써 순장이 대가야고분의 큰 특징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다른 지역의 고분에서 순장 묘제를 확인하는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대가야 묘제와 순장은 가야 전체는 물론 고대 신라 지역이었던 대구, 경산, 의성, 창녕 등 고총고분 지역의 중요한 고고학적 관심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삼국지』, 『삼국사기』 등 문헌사료에만 나와 있는 순장기록을 실물로 확인하는 성과를 가져왔고, 가야고고학과 문헌사학이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가야고고학은 거의가 고분고고학이라고 할 정도로 고분에 대한 연구비중이 절대적이다. 그중에서도 고총고분의 묘제와 출토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발굴조사의 성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고고자료의 발굴과 문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 II. 고분 자료로 보는 가야의 개념

### 1. 가야 묘제의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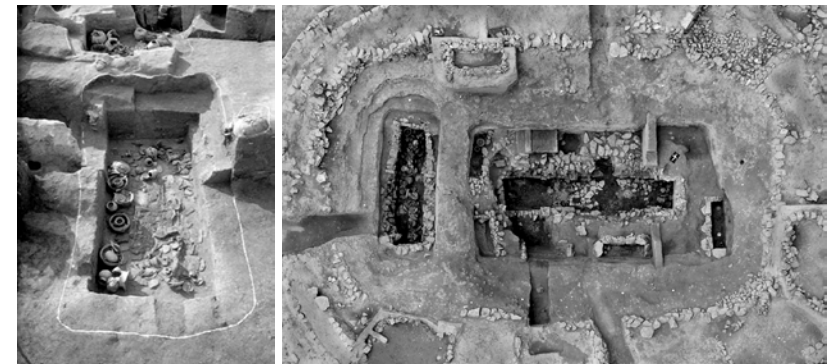
고고자료를 통해 볼 때 가야의 개념은 무엇인가? 여러 가야의 분포 지역과 세력의 크기는 어떻게 다른가? 등 고고학으로 어떻게 신라나 백제와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의 기본은 역시 『삼국유사』의 가락국기나 오가야조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오가야조에 나오는 김해, 함안, 고성, 고령 등 주요 가야지역의 고분, 특히 지배계층의 분묘자료와 출토유물의 조합과 분석을 통하여 가야의 개념을 설정한바 있다.

우선 「가야묘제」의 틀을 세우기 위한 분석의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외형적 조건으로서의 고분의 입지와 봉토의 크기 및 호석의 유무이며, 내부적 조건으로서의 매장부의 축조재료 및 평면형태, 출토유물 특히 토기의 조합관계와 양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김해지역을 제외한 고령의 지산동고분군, 함안의 말이산고분군, 고성지역 송학동고분군의 고층고분은 대체로 공통성을 갖는다. 우선 고분 입지의 특성을 보면, 산성을 배후에 두고 앞에 취락의 평야와 강이 내려다보이는 능선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능선의 정상부 혹은 돌출부에 고대한 봉토를 쌓아 봉토직경이 중형분은 10~15m, 대형분은 20m이상에 달한다. 이런 고분은 정해진 묘역 중앙에 매장주체부인 수혈식 석실을 설치하고, 석실 옆에 부곽이나 순장곽을 설

치한 다음, 묘역을 둘러싸는 원형 혹은 타원형의 호석을 쌓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장곽 없이 주실만 단독으로 설치한 것도 있다. 다만 고성 송학동의 경우 산 능선 정상부가 아닌 낮은 구릉의 언덕에 하나의 봉토 안에 1기의 석실과 1~3기의 석곽이 추가로 결합되어 봉분이 연결되는 결합식 다곽분구조로 이를 분구묘라고 한다.[그림1]

매장부의 축조는 할석이나 자연석을 이용하여 4벽이 서로 엇물리게 쌓는데 평면형태가 길이 대 너비의 비율(장폭비)이 5 : 1 이상이 되어 세장방형을 이룬다. 이 평면 세장방형석실이 구조상 가야묘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성 송학동의 경우는 매장부도 일률적인 수혈식이 아니라 수혈식과 횡구식이 결합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림1] 가야묘제(좌, 목곽묘(대성동 39호분) 우, 수혈식석곽묘(지산동 73호분))

한편, 김해의 대표적 고분군인 대성동고분군은 이와 달리 나지막한 구릉 위에 매장주체부를 목곽으로 하는 목곽묘이며 처음에는 부곽 없는 단곽에서 점차 부곽이 추가되어 주부곽이 평면 일자(日字)형으로 변한다. 여기에도 주곽과 부곽에 순장자를 매장하는 것은 공통적이다.

## 2. 가야토기 양식의 공통점

다음 출토유물 중 토기의 조합상은 가야지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데, 가야 토기로 설정할 수 있는 주요 기종으로는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개배 등이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은 장경호와 고배이다. 구형몸체에 긴 목이 달린 장경호는 목부분에 특징이 잘 나타난다. 긴 목부분은 옆으로 1~2줄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고 그 안에 물결무늬를 돌리고 있는데, 그 중간부분이 부드럽게 잘록한 형태를 하고 있다. 목부분과 몸체사이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S자형 곡선을 이루며 이어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곡선미와 함께 풍만감을 주고 있다.

다음, 고배는 장경호와 함께 가야토기의 특색을 대표할만한 기종인데, 뚜껑과 배신부가 납작하며, 대각이 나팔처럼 크게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납작한 뚜껑 중앙에는 납작하면서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거나 그대로 납작한 단추형꼭지가 붙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점열문대가 2~3줄 돌려져 있다. 이 뚜껑은 장경호의 뚜껑도 공통된다. 대각에는 방형 투공이 상하 일치되게 2단으로 배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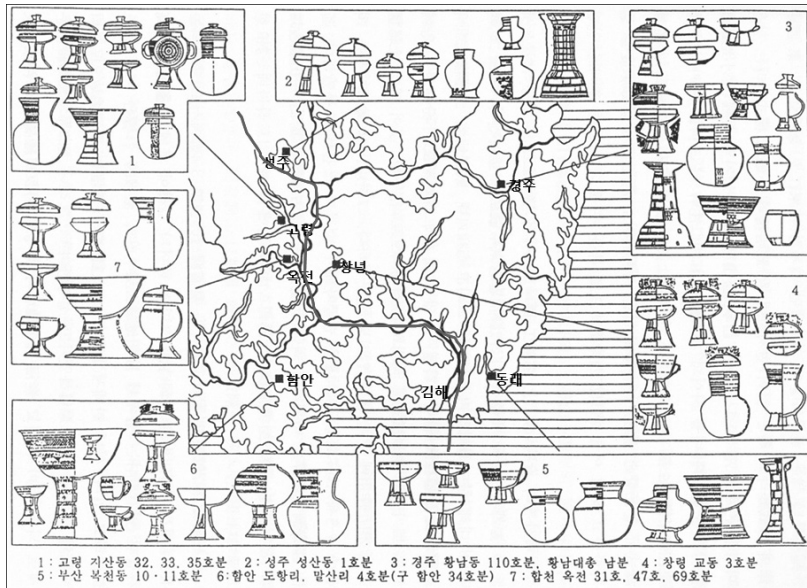
기대는 발형기대, 원통형기대, 족쇄형기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특징적인 것은 장경호를 올려놓는 발형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대는 배부가 깊숙하고 위로 넓게 벌어지면 끝은 짧게 외반하고 있고, 표면에는 2~3줄의 집선문과 침엽문을 배치한 것도 있다. 또 팔자형(八字形)으로 벌어진 긴 대각은 3~4단의 돌대로 구분하고 여기에 3각형 혹은 장방형 투공을 상하 일치되게 배치하고 있다. 이외에 제사

용 혹은 의례용 토기라고 생각되는 원통형기대는 출토품은 많지 않으나 발형기대를 얹어 놓은 듯이 넓게 퍼진 대각부 위에 아래위가 비슷한 원통형의 몸체를 세우고 그 위에 소형 호를 얹어 놓은 듯하다.

이러한 가야토기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4세기 중반이후 각 지역 양식이 성립한 이후의 토기들을 말한다. 지역양식 가야토기가 성립되기 이전 목곽묘에는 와질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4세기가 되면 크게 낙동강 동안의 신라토기와 서안의 가야토기로 크게 벌어지고 또 지역별로 지역양식이 성립되어 5세기 이후에는 대가야양식, 아라가야양식, 소가야양식으로 대별된다.

위에서 살펴 본 가야토기 양식을 신라토기와 그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낙동강 서안에 분포하는 가야토기는 곡선적이고 세련된 느낌이며, 예술성이 강한 반면 신라토기는 전체적 형태가 직선적이고 질박한 느낌이며, 실용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신라토기가 동적 이미지라면 가야토기는 정적 이미지를 준다고 하겠다. [그림2]

가야토기와 신라토기를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고배 받침대에 뿔려 있는 투창의 배열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2단 투창고배의 경우 상하 투창이 일치되게 배열된 것은 가야양식이고, 상하 투창이 서로 엇갈리게 뿔려 있는 것이 신라양식이다. 한편 장경호의 경우 가야식 장경호는 목선의 중간이 약간 오므라드는 느낌이 들고, 목과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부드러운 S자형 곡선을 이루는 데 비하여 신라식 장경호는 목이 직선적이고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각이 있어 목과 몸통의 구분이 확실하고 특히 저부에 대각이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2] 가야토기와 신라토기의 특징 비교(원도 이희준 변형)

### 3. 관모와 위세품(장신구와 장식대도)

다음, 토기 이외의 유물로서는 피장자가 지배층 신분임을 나타내는 위세품이 있다. 그 가운데 가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고령지역에서만 금관이 출토되었는데, 전 고령 출토로 되어 있는 이 금관은 그 양식이 신라식의 출자형 장식과 다른 대가야만의 독특한 초화보주형 대관 형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지산동 45호분이나 32호분, 30호분에서 출토되는 보주형 금동관과 전체적 이미지와 모티브가 동일하여 고령출토품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그림3]



[그림3] 가야의 관모와 귀걸이

관모 외에 가야의 위세품은 귀걸이와 장식대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야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이식의 대부분은 대가야 이식이라고 할 정도로 특징이 있다. 대가야 이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슬형 연결금구와 공구체형 중간식을 조합한 금제라는 점이다. 대가야산 이식은 고령 지산동, 합천 옥전, 합천 반계제 A호분, 함양 백천리 1호분, 진주 중안동, 고성 울대리 2호분-3호석곽, 창원 다호리 B-15호석곽에서 출토되었다. 그 외에 장수 봉서리, 곡성 방송리 고분군 출토품이 있다. 최근에는 순천 운평리, 남원 월산리고분군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한편 환두에 용이나 봉황문을 베푼 장식대도는 고대국가에서 힘과 지배력을 상징하는 위세품이라 할 수 있다. 백제와 가야, 신라, 왜의 대형분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된다. 가야의 장식대도는 신라 다음으로 출토수량이 많으며 특히 합천 옥전고분 출토품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 4. 묘제와 출토유물로 본 가야의 시공적 개념과 영역

이와 같은 고총과 유물이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가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야사도 역사시대의 한 부분이므로 고고자료로만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헌사의 연구 성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야사의 끝은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 멸망하는 시기로 보는데 아무런 의의가 없다. 그러나 가야사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서기42년 외에 문헌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야각국의 여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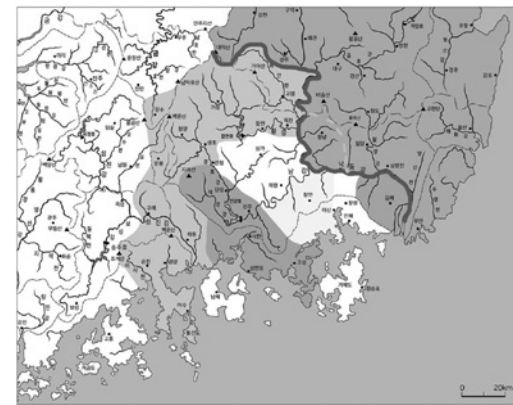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가야의 시작은 김해지역에서 묘제가 지식묘에서 목관묘로 확실히 바뀌고 그 안에 지휘권의 상징인 철기부채가 부장된 가야의 숲 3호 목관묘로 상징되는 서기1세기 전반부터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수로왕관련 기사와 함께 고려해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 목관묘 → 목곽묘 → 수혈식석곽묘(고총) → 횡혈식(횡구식)석실묘로 변하는 가야묘제 발전의 맥락으로 보아도 가야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다.

다음 묘제와 출토유물로 가야의 영역을 보면, 우선 변한에서 가야로 전환되는 시기로 인식하는 김해지역에서 3세기 중반 대형 목곽묘의 축조와 후장, 순장이 나타나는 대성동 29호분을 기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4세기 초 낙랑 대방의 몰락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변동으로 변한사회가 가야로 발전하였다는 문헌사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변화는 김해지역 이외의 가야지역에서도 대체로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나 특히 5세기이후에는 지역성이 뚜렷하

게 나타난다.

이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동쪽은 황산강(낙동강), 서남쪽은 바다,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이라고 한 『삼국유사』 기록과도 일치한다. 즉 낙동강 중류, 대구의 금호강에서 가야산을 잇는 서안에 해당된다. 다만 서쪽은 섬진강을 넘어 전남 동부지역인 순천, 광양이 포함되고, 지리산을 넘어 금강 상류인 진안, 장수의 진안고원과 남원의 운봉고원 동쪽이 가야의 권역이 되는 것이다.[그림4]

이렇게 보면 같은 『삼국유사』 5가야조의 내용과 충돌하게 된다. 즉 5가야조에는 가야국명과 지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낙동강 서안 상주 함창의 고령가야, 성주의 성산가야가 포함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연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고려 초에 이들 가야국명과 지명을 조정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고고학 내용이 맞다고 생각된다.



[그림4] 가야의 영역 (원도 이희준 변형)

다만 창녕 지역은 『삼국유사』 5가야조에 비화가야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에 나오는 가야7국 중 하나인 비자발로 비정되기 때문에 4세기 후반 이후로 늦은 시기까지 가야였다고 인식하고 신라 진흥왕 척경비가 세워지는 6세기 중반에 가야가 신라에 복속되었다고 보는 고고학자 및 문헌사학자도 있다.

### Ⅲ. 고분 자료에 나타나는 가야의 지역성과 영역

이와 같이 가야의 묘제와 토기, 위세품 등 유물은 가야의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만의 지역색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기록된 특정가야와 일치하고 있어 흥미 있는 일이다. 그 지역성은 묘제와 토기에서 모두 나타나며 김해의 금관가야권역, 함안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권역, 고성을 중심으로 진주, 사천 등의 소가야권역, 고령을 중심으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등 경남서부지역과 남원, 장수, 진안, 순천, 광양 등 호남 동부지역에 이르는 대가야권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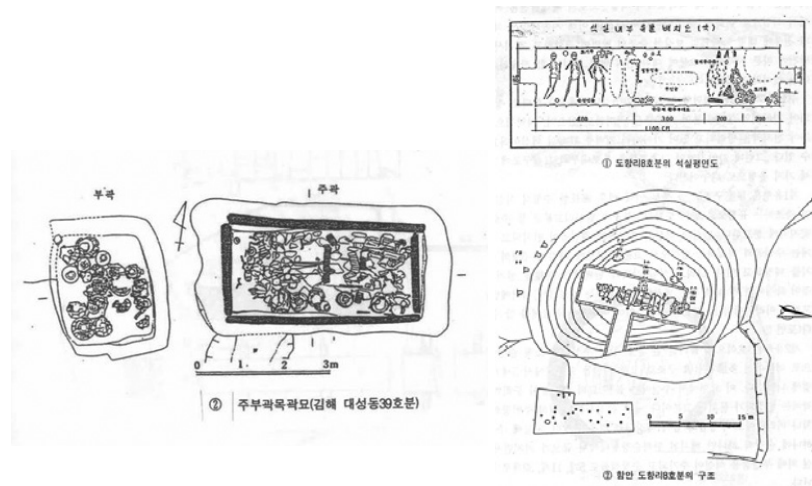
#### 1. 금관가야 영역

낙동강하구에 위치한 김해지역은 이른 시기부터 바다를 통한 활발한 해상 교역활동으로 영남지방의 다른 지역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1세기경부터 변진 12국 중 월등히 우세한 구

야국이 성립될 수 있었다. 김해지역 여러 곳의 소분지를 이어주는 하천 수계 주변에 형성된 고분군들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김해지역 고분군은 주류가 목곽묘로 이루어진 양동리고분군과 대성동고분군이 중심이다. 그 외에 목관묘, 목곽묘, 수혈식 석곽묘, 횡구식 석실분 등 다양한 묘제가 중첩되어 이루어진 예안리고분군이 있으나 여기서도 중심 묘제는 장방형 대형 목곽묘이다. 이 시기 양동리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수장묘는 장방형 목곽묘인 양동리 162호분이다. 이 고분은 목곽의 길이 388cm, 너비 240cm, 깊이 59cm 규모의 대형 장방형 목곽묘일 뿐 아니라 부장유물에서 종전의 다른 목곽묘에서는 볼 수 없는 한경 2매를 포함한 10매의 동경과 수정다면옥, 유리구슬목걸이 등 질 높은 위세품과 다량의 철정, 철촉, 철모 등 철제무구, 재갈 등을 부장하고 있다.

장방형 목곽묘는 대성동 29호분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조면에서 대형화되고, 유물면에서 위치의 집중화와 질량이 대량화되며, 순장이 실시되는 특징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4세기가 되면 이러한 현상은 묘제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장방형 목곽묘에서 부장품 공간이 따로 독립되어 주부곽 목곽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김해지역 목곽묘의 가장 대표적 묘제인 주부곽이 일렬로 배치되는 일자형(日字形) 목곽묘인 것이다.[그림5의 좌]



[그림5] 금관가야와 아라가야의 묘제  
(좌, 김해 대성동 39호분 우, 함안 도항리 8호분)

주부곽 목곽묘인 대성동 13호분에도 주곽에 순장자가 매장되었는데 주피장자의 머리맡과 발치에 각 1인과 주인공의 좌측 옆에 1인 등 모두 3인이 순장되었다. 부곽의 순장여부는 파괴가 심하여 확실하지 않으나 13호분보다 조금 후대의 고분이지만 역시 주부곽식 목곽묘인 3호분의 부곽에 순장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13호분의 부곽에도 1인 정도 순장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 2. 아라가야 영역

함안지역 고분군 중에서 중심지 고분군은 말이산의 능선과 구릉사면에 걸쳐 넓게 형성된 말이산고분군이다. 말이산고분군은 고대한 대형봉토를 가진 수혈식석실분이 대부분이지만 지석묘, 목관묘, 목

곽묘 및 횡혈식석실분도 일부 섞여 있어 이른 시기부터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함안지역은 김해의 구야국과 함께 변진(弁辰) 12국 중 가장 유력한 소국이었던 안야국(安邪國)의 고지이며 이것이 발전하여 안라국(安羅國), 혹은 아라가야 된 곳이다. 그러나 적어도 3세기 이전부터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여 중국에 까지 알려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국지』 동이전에 우호(優號)를 칭한 유력한 나라로 기록되어 있어 이 시기의 유적이 있었을 것이지만 안야국의 수장묘라고 생각되는 고분은 현재까지 고고학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 시기의 묘제는 김해지역과 마찬가지로 목관묘 혹은 목곽묘였을 것으로 보이나, 창원 다호리 유적이거나 김해 양동리고분군처럼 대규모의 목관묘유적이거나 목곽묘유적은 마갑총(馬甲塚)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함안에서 수장묘로 볼 수 있는 마갑총은 목곽의 규모도 길이 600cm, 너비 230cm, 깊이 100cm의 대형 목곽묘에 속하고 출토유물도 상태가 매우 양호한 말갑옷 일습과 은상감환두대도와 철모, 철검 등의 철제품이 출토되어 수장층 분묘로 판단된다.

이후 수장묘의 묘제는 내부주체가 세장방향 수혈식 석실분으로 변화되면서 봉토가 대형화되고 순장이 행해지게 된다. 함안지역의 대형 봉토분들은 가야지역 고총고분의 일반적 입지와 마찬가지로 구릉의 정상부를 따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용기부에 자리 잡거나 혹은 구릉의 사면에 조영된 경우는 등고선의 방향과 나란히 축조하여 더욱 크게 보인다.

말이산고분군에서 최대의 고분인 4호분(구34호분)은 북에서 남으

로 뺀 나지막한 구릉의 중심 용기부에 입지한다. 고분은 봉분 직경 39.3m, 높이 9.7m의 대규모의 봉분 중앙에 수혈식 석실 1기만 설치한 단실구조이다. 석실의 길이 978.7cm, 너비 172.7cm, 깊이 166.6cm로 장폭비가 5.6:1의 매우 세장한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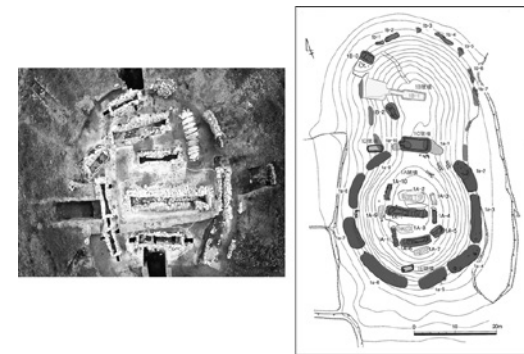
이 밖에 주능선에서 서쪽으로 뺀 가지능선 말단부에 위치한 8호 분도 직경 38m, 높이 5m의 봉분 중앙에 석실 1기만 배치하였다. 석실의 규모는 길이 11m, 너비 1.85m, 깊이 1.9m로 장폭비가 5.9:1의 세장형이다.[그림5의 우]

함안 도항리고분군의 묘제상 가장 큰 지역적 특징은 석실 네벽에 방형 감실(龕室)이 설치된 점이다. 이 감실은 대개 양장벽의 위쪽에 각 2개, 단벽에 각 1개가 설치되었는데, 장벽의 감실은 서로 같은 높이에서 마주보게 되어 있고 단벽의 감실은 서로 약간 어긋나게 마주보고 있다. 규모는 한 변 길이 40~60cm, 깊이 60~80cm 정도이다. 현재로서는 가야지역에서 함안에만 존재하는 이 석실 벽의 감실의 용도는 마주보는 감실에 긴 통나무를 걸쳐 봉토의 무게에 의해서 개석이 부러지는 것을 막고 석실벽도 보호하는 보완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분의 묘실 구성에서 부장품을 위한 부곽(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라가야 묘제의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주실의 길이가 10여m로 긴 것은 주인공과 함께 부장품과 순장자를 함께 넣기 위한 방법에서 나온 구조로 생각된다. 하나의 석실에 주인공과 순장자, 부장품을 함께 매장해야 하므로 자연히 순장자의 수도 5, 6명 이상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이며, 부장유물도 부곽이 있는 김해 대성동고분군이나 고령 지산동고분군 보다 대체로 적은 편이다.

### 3. 소가야 영역

고성을 중심으로 한 소가야영역 고분축조 양상은 하나의 봉토 안에 1기의 석실과 1~3기의 석곽이 추가로 결합되는 결합식 다곽분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은 묘곽의 평면구성만 보면 대가야식 묘제와 비슷하나 축조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즉 대가야식 묘제는 생토를 파고 주실과 석곽을 동시에 축조하며 주실은 지하에 위치한다. 따라서 주실과 석곽의 피장자는 주인공과 순장자의 관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소가야식 묘제는 표토를 정지하고 그 위에 흙을 다져 쌓아 올려 봉토를 어느 정도 만든 다음 봉토의 한 부분을 다시 파내고 그 안에 묘곽을 축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대개는 석실과 석곽의 축조도 동시가 아닐 수도 있어 피장자의 관계도 확실하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고성 율대리 2호분이 대표적인 고분이다. 송학동 1호분은 수혈식석곽묘에 횡혈식석실분이 후에 추가된 연접고분이지만 기본은 이러한 결합식 다곽분 구조이나 영산강유역의 분구묘 형태로 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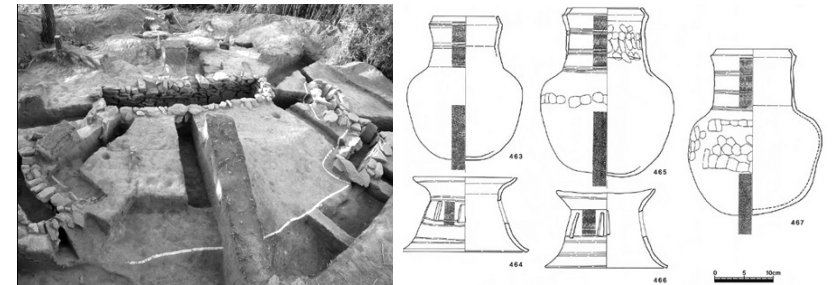
[그림6] 소가야 묘제 (고성 송학동1호분 원도,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조사결과 1호분은 수혈식석곽묘인 1A호분을 설치한 후 횡혈식석실인 1B호분을 연결하였으며, 역시 횡혈식석실묘인 1C호분은 연결된 지점을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분구 주위는 구덩이를 연속적으로 굴착하여 만든 주구가 확인되었으며 원통형 토기를 설치하였다. 1A호분은 해발 31m 정도의 낮은 구릉에 조성된 수혈식석곽묘로 설치하였다. 유구의 배치는 가장 규모가 큰 1A-1호분과 약간 작은 1A-2호분을 나란히 설치하고 그 주위로 10기의 석곽을 환상(環狀)으로 배치한 상태이다.[그림6]

#### 4. 대가야 영역

묘제의 지역성으로 본 대가야권역은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묘제와 출토유물이 중심이 된다. 그 중에서도 대가야의 왕릉급인 고총고분의 묘제와 위세품, 대가야양식 토기를 종합하여 각 지역의 묘제와 출토유물을 종합한 고분 자료로 판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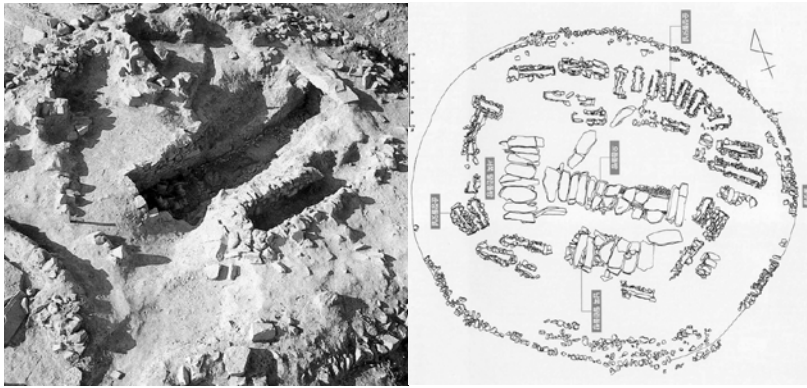
32호분 석실에서는 금동관, 철관갑옷과 투구 등의 위세품과 순장곽 1기를 배치하는 단곽순장 석곽분은 각 지역의 지배층 묘제로 확립되었고, 점진적으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남원 월산리, 두락리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된다. 이와 더불어 고령양식 토기는 남원 월산리고분군 뿐만 아니라 소백산맥을 넘어 전라북도 장수지역까지 확산된다. 또한 순천 운평리고분에서도 대가야식 묘제와 토기가 출토되고 있어 대가야고분의 지역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의미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가야권역이 확대된 것만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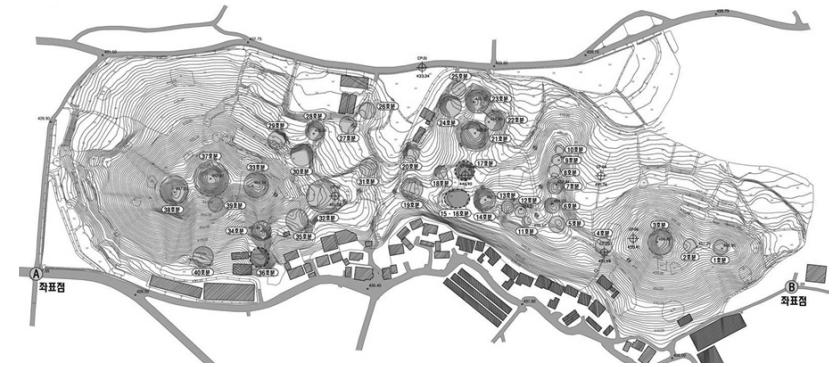
[그림7] 대가야 영역의 서쪽 끝 고분(순천 운평리 M1호분)

특히 운봉고원의 동쪽에 위치한 월산리 M5호분에서 중국산 청자계 수호가 출토되어 이 지역의 영역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자기가 백제지역에서 주로 출토되기 때문에 백제가 이 지역에 진출한 후 분여한 것이고 백제권역이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묘제나 토기 등 유물의 대부분이 대가야산이라는 점을 들어 대가야에서 사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다곽순장 고분은 주인공을 매장공간인 석실(목곽)의 주실(곽) 이외에 부장품을 넣기 위한 부실(곽)을 만들고 이 주·부실을 둘러싸며 여러 개의 소형석곽을 배치해 순장시키고 있는 순장형태이다. 이 때 순장자는 순장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실(곽) 안에 주인공의 머리맡과 발치에도 있고, 부장실(곽)에도 순장시키는 것이 보통이다.[그림8]



[그림8] 대가야 순장묘(좌, 단곽순장 지산동 32호분 우, 다곽순장 지산동 44호분)



[그림9]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분포도

## IV. 가야사 연구의 고고학 과제

### 1. 전북 동부지역(장수) 고총고분의 발굴조사

장수, 진안지역은 전라북도의 동부에 위치하여 험준한 소백산맥의 지류들이 모여 해발 400m이상 되는 산간지역을 이루는 곳이다. 금강의 상류에 해당하는 수계에 위치한 이곳은 대가야식 고총고분들이 분포하고 대가야식 토기들이 주류로 출토되고 있다. 남원 유곡리·두락리고분군은 이번에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으로 등재되었다.[그림9]

따라서 이 지역을 정밀 발굴 조사함으로써 고고자료를 통한 가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운봉고원의 철산유적도 함께 발굴하여 이 지역 정치체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가야 국가단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밖에 발굴조사가 미진한 중심고분군의 실제 파악이 필요한 합천 삼가고분군이나 산청 중촌리고분군의 고분과 가야사의 발전단계를 규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V. 맺음말

가야사의 복원은 근래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개관적 자료에 기초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과 연계되어 진행될 경우 자칫 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됨으로써 또 다시 지역사에 편중되어 논란만 가중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새로운 문헌 사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가야사복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고고학 자료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고자료만 가지고 가야사를 연구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가야의 개념과 정의, 그 영역을 명확히 하는 것은 가야사연구의 활성화와 객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가야묘제」의 틀을 세우기 위한 분석의 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외형적 조건으로서의 고분의 입지와 봉토의 크기 및 호석의 유무이며, 내부적 조건으로서의 매장부의 축조재료 및 평면형태, 출토유물 특히 토기의 조합관계와 양식 등이다. 이와 같은 분석기준에 의해 설정한 가야 묘제는 목관묘,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로 발전하는 단계가 된다. 이것이 가야묘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출토유물 중 토기의 조합상은 가야지역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가야 토기로 설정할 수 있는 주요 기종으로는 고배, 장경호, 발형기대 등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은 장경호와 고배이다. 구형몸체에 긴 목이 달린 장경호는 목부분과 동체를 연결하는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되어 S자형 곡선을 이루며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곡선미와 함께 예술적 감각이 두드러진 특징이 잘 나타난다. 고배는 장경호와 함께 가야토기의 특색을 대표할만한 기종인데, 뚜껑과 배신부가 납작하며, 대각이 나팔처럼 크게 곡선을 이루며 벌어져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대각에는 방형 투공이 상하 일치되게 2단으로 배치되고 있다. 다음 가야의 위세품은 초화형

관모와 귀걸이, 장식대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이와 같은 고총과 유물이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지역을 고고학적으로 가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야사도 역사시대의 한 부분이므로 고고자료로만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문헌사의 연구 성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영역은 낙동강 중류, 대구의 금호강에서 가야산을 잇는 서안과 남해안에 해당된다. 다만 서쪽은 섬진강을 넘어 전남 동부지역인 순천, 광양이 포함되고, 지리산을 넘어 금강 상류인 진안, 장수의 진안고원과 남원의 운봉고원 동쪽이 가야의 권역이 되는 것이다.

넷째, 가야의 묘제와 토기, 위세품 등 유물은 가야의 공통성을 가지면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만의 지역색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가야고고학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삼국유사』에 기록된 특정가야와 일치하고 있어 흥미 있는 일이다. 그 지역성은 묘제와 토기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김해의 금관가야권역, 함안을 중심으로 한 아라가야권역, 고성을 중심으로 진주, 사천 등의 소가야권역, 고령을 중심으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등 경남서부지역과 남원, 장수, 진안, 순천, 광양 등 호남 동부지역에 이르는 대가야권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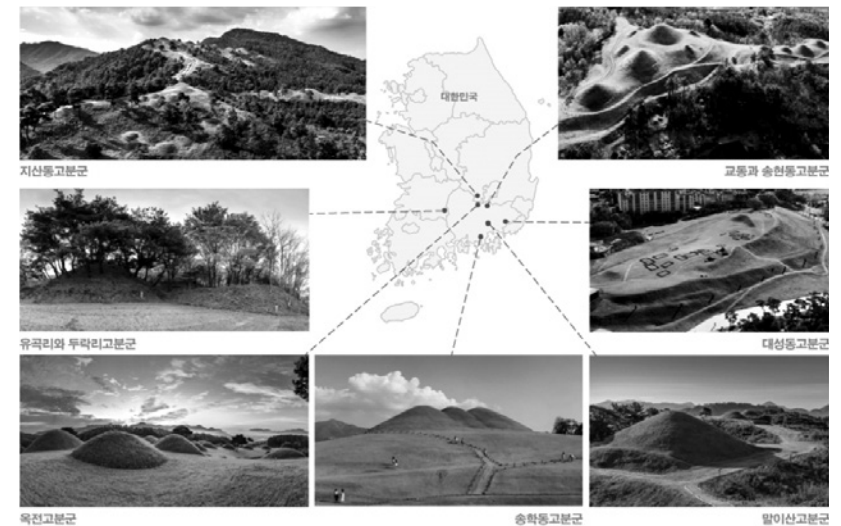


## 1.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 과정

유네스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가야고분군'이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가야고분군'은 연맹이라는 독특한 정치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와 병존하였던 가야의 문명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가야는 1~6세기에 걸쳐 한반도 남부의 금관가야, 대가야 등 다수의 개별 지역 정치체가 동질성을 바탕으로 상호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했던 연맹체였다. 가야고분군의 지리적 분포, 입지, 묘제, 부장품은 이러한 가야연맹의 특성을 증거한다는 사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현재까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 파악된 가야의 7개 정치체가 조성한 지배층 고분군이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 합천 옥전고분군은 합천 쌍책지역 가야 정치체,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남원 운봉고원 가야 정치체,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비화가야의 지배층 고분군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림 1] 세계유산 등재 7개 '가야고분군'

가야연맹을 실증하는 7개의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2012년에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대성동고분군과 함안군에 있는 말이산고분군, 경상북도 고령군에 있는 지산동고분군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8년에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옥전고분군, 고성군에 있는 송학동고분군, 창녕군에 있는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전라북도 남원시에 있는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4곳이 추가되면서 모두 7곳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많은 심사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재청에서 여러 단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등재신청 대상이 선정된다. 국내의 심사과정은

대략 4단계로 구분되는데, 잠정목록 등재 → 우선등재목록 선정 → 등재신청 대상 선정 → 최종 등재신청 대상 선정 단계이다. 국내의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등재신청 대상에 선정된 유산은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사무국에 제출하게 된다.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접수한 유네스코는 4단계로 심사를 진행하는데, 유네스코 자문기구<sup>1)</sup> 현지실사 → 세계유산 등재 권고사항 결정을 위한 패널회의, 보충자료 요청 →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평가결과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 →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야고분군’은 2012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 12월에 3곳(김해·함안·고령)의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2015년 3월에 ‘우선등재 추진대상’에 선정되었다. 2020년 9월에는 국내 세계유산 최종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듬해 2021년 1월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2021년 9~10월에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에서 가야고분군 현지실사를 진행하였고, 2022년 2월에는 자문기구(ICOMOS)에서 요청한 보충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가야고분군은 2022년 6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유산위원회가 2023년 9월로 연기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마침내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되었다.

1) 유네스코 자문기구는 ICCORON(국제문화재보존센터),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UCN(세계보존연맹)이 있다. 문화유산은 ICOMOS, 자연유산은 IUCN에서 심사를 담당한다.

## 2. 가야의 역사기록과 발굴조사

‘가야’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여러 정치체를 총칭한다. 한·중·일 사서에는 ‘가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가야(加耶·伽耶·伽倻), 가라(加羅), 가량(加良), 가락(駕洛·伽洛), 구야(狗耶), 임나(任那) 등 10여 종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인 것은 가라(加羅)이지만 국내 학계에서는 한국의 문헌 기록 중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의 용례를 참고하여 가야(加耶)로 표기한다.

현재 남아있는 가야 자체의 역사 기록은 없으나 3세기에 편찬된 중국의 역사서(삼국지)에는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가야 정치체와 중국 군현 사이에 벌어졌던 교역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6세기 중국의 문헌(남제서)에는 479년 가야가 중국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가야연맹이 동아시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8세기에 편찬된 일본의 역사서(일본서기)에는 가야연맹을 구성한 여러 세력이 열거되어 있고, 가야연맹과 백제·신라·일본열도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의 문헌에도 가야에 관한 기록이 일부 남아있다. 삼국시대를 기록한 12세기(삼국사기), 13세기(삼국유사) 문헌에는 가야연맹의 범위와 전쟁기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16세기 조선시대 문헌(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금관가야와 대가야의 건국 신화가 수록되어 있고, 대가야와 신라 간의 결혼 동맹에 관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16세기에 편찬된 문헌(함주지)과 19세기에 편찬된 문헌(고령군읍지)에는 말이산고분군과 지산동고분군이 언급되어 있는데, 구릉지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대형 고분을 고대 왕들의 무덤으로 인식하고 있었

음이 드러난다. 국내외의 문헌기록을 통해 단편적으로나마 과거부터 가야의 존재가 인식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야고분군'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야 멸망 이후 오랫동안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졌던 가야는 고고학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가야의 고분군에 대한 조사는 1910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인 연구자들은 먼저 문헌을 통해 가야의 범위가 경상남도 일대임을 파악하였고, 가야 유적의 분포 현황을 알기 위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릉지에 축조된 대형 고분을 가야의 왕릉으로 추정하였고, 시범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의 고분군임이 사실로 확인되자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지산동고분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말이산고분군, 송학동고분군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되었다.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조사는 총독부에 보고되었고, 그 결과는 『조선고적도보』 등으로 발간되었다. 또한 당시를 기록한 3만여 점의 유리 건판 사진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어 '가야고분군'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시기부터 가야의 고분군에 대한 보호 관리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1933년에는 조선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이 발령되었고, 1939년에는 말이산고분군, 지산동고분군,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이 '고적'으로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주도의 문화재 조사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가야의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는 1970년대 지산동고분군에 대한 발굴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가야 여러 지역에서 발굴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문헌 기록에만 남아있었던 가야의 실체를 확인하

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90년에는 김해시 도시 개발 예정 부지에서 대성동고분군이 극적으로 발견되면서 금관가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고고학 발굴조사에 첨단 과학기술이 융합되면서 가야사 연구 범위가 확대되었다. 가야 순장인골의 형질 인류학적 연구, 가야 부장품의 제작 기술 복원, 가야 고분의 봉토 축조 기술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라진 가야 문명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삼국사기(1145년)

삼국사기(1145년)

삼국사기(1145년)

[그림 2] 가야에 관한 내용이 있는 문헌

### 3. 가야의 역사

'가야고분군'이 조성되던 1~6세기는 동아시아 각지에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났다. 중국에서는 한(기원전 206년~기원후 220년)이 멸망하고, 위진남북조(기원후 220~589년)로 이어진 변혁의 시기였다.

일본열도는 각지에서 정치체가 성장하면서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는 시기로, 고훈시대(3세기 후반~6세기 후반)라 부른다. 한반도와 만주에서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였던 고구려·백제·신라와 함께 가야연맹이 병존하였다.

가야는 1세기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출현하였으나 기록을 통해 전체의 역사를 상세히 알기는 어렵다. 단, 가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록은 남아있다. 『삼국유사』 왕력 「가락국기」에 따르면, 42년에 수로왕이 가락국을 건국한 것으로 되어있어 대개 1세기 전후에 가야가 건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야의 멸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532년에 금관국이 멸망하고, 562년에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제국이 멸망하였다. 아라가야는 『삼국사기』에 법흥왕 대(514~540년)에 신라에 의해 멸망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지지만, 『일본서기』에는 아라가야가 540년대에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였던 것이 확인되고, 561년 신라가 아라파사산(阿羅波斯山)에 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560년경에 신라에 의해 멸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고학계에서는 가야의 건국 시기를 2세기 또는 3세기로 다소 늦추어 보는 견해도 있으나 멸망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가야연맹을 구성하였던 각 정치체는 한반도 남부의 해안가나 산지와 하천으로 둘러싸인 분지를 기반으로 성장하였다. 가야 각 정치체는 지리·환경적인 요인으로 자율성이 강하였지만,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원의 편중과 폐쇄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바탕으로 수평적 관계를 형성했다. 가야사는 대체로 4세기 또는 5세기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전기에는 남해안을 통해 전해진

선진문화의 영향으로 경남의 김해·창원·함안·고성·사천과 부산의 동래에서 가야 세력이 성장하였고, 후기에는 경북 고령, 경남 거창·함양·합천·산청, 낙동강 동쪽의 경남 창녕, 호남 동부지역의 전북 장수·남원, 전남 순천·여수·광양지역으로 가야 문화권이 확대된다. 가야 전기에는 금관가야·아라가야가 강성하였고, 후기에는 대가야·소가야·비화가야·다라국·기문국 등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그림 3] 가야의 영역과 주요 고분군

## 4. 가야의 영역

가야의 영역은 『삼국유사』에 북쪽은 가야산, 남쪽은 남해, 동쪽은 낙동강, 서쪽은 지리산을 경계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경상남도 지역과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가 해당하며 가야 유적의 분포범위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가야문명이 형성되었던 지역은 사면에 자연적인 경계선—북쪽과 서쪽은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남쪽은 해안과 접함—이 형성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기에 좋은 지리적 환경이었다. 연맹을 형성했던 가야 정치체의 지리적 영역은 낙동강 지류와 소백산맥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에 의해 세부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가야 각 정치체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경계 지어진 세부 지역에서 출현했고, 그 중심지는 그 지역 내의 분지에 위치하였다. 일견 닫힌 듯 보이는 분지에 위치한 이들의 정치적 중심지는 강과 남해안에 인접하여 가야연맹 내부,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가야 정치체는 한편으로는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가야 각 정치체는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상호 문화적인 특징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단일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가야 각 정치체의 정치적 중심지로 기능했던 분지에는 각 정치체의 최상위 지배층의 고분군이 존재한다. 이 최상위 지배층의 고분군은 가야의 영역 전체에 퍼져 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의 고분군은 가야연맹이라는 다중심이었던 고대 문명을 보여주는 증거로 남아있다.

## 5. 가야고분군의 속성

### 1) 입지

가야는 지배층의 무덤을 그들의 정치적 중심지에 있는 구릉지에 조성하였다. 취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역에서 쉽게 잘 올려다 보이는 구릉지를 지배층의 묘역으로 선택하였다. 구릉지 전체를 지배층의 묘역으로 사용하였으며, 최상위 지배층의 고분은 구릉지 정상부에 축조하였다. 이러한 고분 축조의 전통은 가야가 존속한 전 시기 동안 유지되었고, 지배층의 묘역으로 사용된 일정한 구릉지 내에 거대한 봉토분이 군집 조성됨으로써 장엄한 경관이 만들어졌다. 가야 지배층 고분군의 이러한 구릉지 입지는 지배층의 권위를 보여주고, 가야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가야 고분의 축조 전통은 동시기 한반도의 삼국, 즉 고구려·백제·신라와는 구분되었다. 구릉지 내에서 지배층의 고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상부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 계층 분화의 심화를 보여준다. 1~2세기 고분은 구릉지 하단부나 평지에 조성되지만, 3세기부터 구릉지 정상부를 포함한 구릉지 전체로 묘역이 확장된다. 이러한 매장 위치의 변화는 최상위 지배층의 출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매장 시설의 대형화와 대형 봉토분의 출현 또한 가야 최상위 지배층의 출현을 증거한다. 3세기에는 이전에 비해 매장 시설의 규모가 2배 이상 커진 고분이 구릉지 정상부에 축조되며, 위계가 낮은

다른 고분들과 공간이 분리된다. 지상에 거대한 봉토를 쌓아 올린 봉토분은 5세기에 등장한다. 대형 봉토분 축조는 막대한 비용과 노동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상징적인 정치적 행위로 가야가 멸망하는 6세기 중엽까지 약 150년 동안 지속되었다.

대형 목곽묘가 구릉지 정상부에 밀집하여 조성되어 있는 대성동고분군은 3세기 최상위 지배층의 출현을 가장 잘 보여준다. 말이산고분군은 구릉지에 축조된 고분군이 가야의 상징적인 경관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준다. 구릉지 정상부에 줄지어 늘어선 대형 봉토분의 웅장한 경관은 지배층의 권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지산동고분군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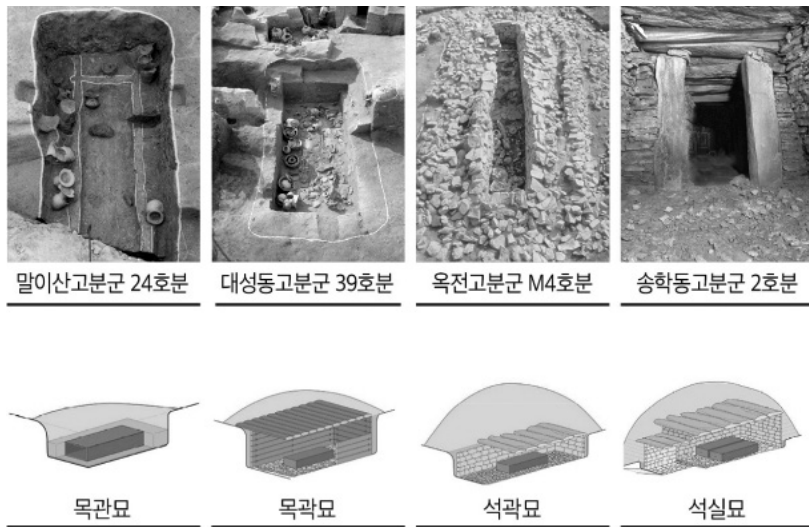


[그림 4] 7개 가야고분군의 입지와 경관(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 2) 묘제

가야 고분의 묘제는 장례 풍습의 변화와 함께 오랜 기간 지속된 가야의 역사를 알려준다. 가야 고분은 목재에서 석재로, 관묘에서 실묘로,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변화하는 동아시아의 묘제 변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가야고분군의 묘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1~2세기에는 목관묘, 2~5세기에는 목곽묘, 4~6세기에는 석곽묘, 6세기에는 석실묘가 축조된다. 목관묘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통나무 판재를 이용하여 만든 관을 설치하고, 관 내부와 외부에 소량의 토기와 철기를 부장한 후 상부에 흙을 덮어 마무리하는 단순한 구조이다. 목곽묘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목곽을 설치한 후 그 안에 목관을 넣는 구조이다. 목관 내부나 목관 주위에 부장품을 다량 부장한다. 목곽묘의 상부에는 낮은 봉토를 축조하였다. 석곽묘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돌을 이용하여 사방에 벽을 쌓은 다음 목관을 넣고 상부에 뚜껑 돌을 설치한다. 지상에는 흙과 돌, 점토를 섞어서 쌓아올려 봉토를 만든다. 석실묘는 지상에 돌을 쌓아 무덤 방을 만들고, 봉토를 축조한 후 미리 마련해 둔 입구를 통해 목관을 넣는다. 입구를 통해 여러 차례 매장 가능한 구조이다.



[그림 5] 가야 고분의 묘제(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 3) 부장품

가야의 고분에는 피장자와 함께 의례용 토기, 철제갑옷과 무기, 농공구, 위세품, 교역품 등 다양하고 많은 물품이 매납된다. 이는 피장자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거나 망자의 사후 세계에서 안락을 기원하기 위해서 매장한 것이다. 부장품의 구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갔으며 피장자의 신분 따라 큰 격차가 나타난다. 가야 최상위 지배층의 무덤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물품이 다량 부장되었다. 가야 고분의 부장품은 단순히 물품에 그치지 않고, 당시 가야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며 물질문화의 도달 수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가야토기는 주변 국가와 다른 가야 문화권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그 분포권은 당시 가야의 영역 범위를 유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야토기는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양식 또는 형식 차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이는 가야를 구성한 개별 정치체의 존재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가야토기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행해진 국제교류, 가야의 국제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가야토기는 이전 시기의 무문토기, 점토대토기의 제작기술을 바탕으로 밀폐된 토기요를 사용하여 고온으로 소성하는 중국의 토기 제작기술이 결합되면서 성립하였다. 가야토기는 4세기 후반부터 일본으로 전파되어 고훈시대 '스에키'를 탄생시켰다. 스에키는 1000℃ 이상의 고온으로 소성되어 단단하고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스에키는 출현과 함께 일본열도 전역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일본 고훈시대 대표 토기로 정착하였다.

철의 생산과 유통은 가야 경제가 성장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낙동강 하류 지역을 중심으로 철기 생산과 유통이 본격화되었고, 제철기술은 곧바로 가야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가야 여러 세력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야에서 생산된 철기는 낙동강과 남해안으로 이어진 교통로를 통해 주변 각지로 수출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야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야 고분에 부장된 철기는 기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성격이 변화한다. 초기에는 철검이나 간단한 무기류, 농공구를 중심으로 부장하였으나, 3세기부터 다종다양한 철기를 다량으로 부장하였다. 5세기부터는 대도·갑주·마구 등 무장적 성격의 위세품이 가야 전역의 지배



층 고분에 공통적으로 부장된다. 이는 가야 지배층의 정치적인 권위가 군사력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야가 존재했던 1~6세기는 이전 시기에 비해 국가간의 교역과 교섭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인적, 물적 교류와 함께 다양한 정보가 교환되면서 동아시아문화권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가야는 대륙과 해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문화권 형성에 기여하였다. 당시의 이러한 사정은 고분에 부장된 교역품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 1~4세기의 교역은 금관가야의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중국·북방·일본의 교역품을 통해 드러나며, 5~6세기의 교역은 가야 각 정치체의 지배층 고분군에서 확인 가능하다. 남해안에 위치한 송학동고분군에서는 일본열도와와의 교섭을 보여주는 교역품이 출토되었고,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서는 백제와의 교섭,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에서는 신라와의 교섭을 보여주는 교역품이 출토되었다. 낙동강과 황강으로 연결된 수로 교통의 중심에 위치한 옥전고분군에서는 가야 각 정치체, 백제·신라와의 교역을 보여주는 교역품이 다량 출토되었다. 대가야 토기와 철기는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출토되며, 지산동고분군에서는 오키나와산 청자고동으로 만든 국자, 백제계 동완, 신라계 대도와 금동관 등이 출토되었다.



다양한 형상을 본 떠 만든 가야토기(말미산 45호분)

대도(옥전고분군 M3호분)

중국제 허리띠장식  
(대성동고분군 88호분)

일본(왜) 토기  
(송학동고분군 1호분)

일본(왜) 말 장식품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7호분)

[그림 6] 가야 고분의 부장품(사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 6.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기여했던 가야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각 정치체는 자율과 공존을 추구하며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는 집단의 경계를 넘어 사람, 물건, 사상이 자유롭게 흘러던 열린 세계였다. 선진적인 토목건축기술과 수공업(토기·청동기·철기 등)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었고, 한자, 유교·불교, 율령 등이 퍼져나가면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가야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문명의 가교였다. 가야는 해로와 수로, 육로가 연계된 체계적인 교역망을 통해 동아시아 세계를 이었고,

동아시아 문명을 융성하게 하였다.

가야 각국은 주변 국가와 자율적으로 교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금관가야와 소가야는 남해안 해로를 통해 중국, 백제(마한), 왜를 연결하였다.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가야(변한)에서 생산된 철이 중국 군현과 바다 건너 왜로 수출되었다는 기록과 함께 중국에서 가야(김해)를 거쳐 왜로 이어진 항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세기 후반에 금관가야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가야토기는 4세기 후반에 일본열도로 전파되어 일본 고훈시대를 대표하는 '스에키' 토기를 탄생시켰다. 주변 각국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금관가야의 텅이 쇠·쇠도끼 등 각종 철제품도 가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를 증명해 준다. 김해 구산동유적은 북부 규슈 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마을로 판명되었고, 김해 봉황동유적과 관동리유적에서는 선착장과 물품을 저장했던 창고가 다수 확인되었다. 고성만에 조성된 송학동고분군에는 백제·신라·왜에서 반입된 유물이 다량으로 부장되어 있었다. 아라가야·비화가야·다라국은 남해안과 남강·낙동강을 통해 해양과 한반도 내륙의 여러 집단을 연결하였고, 기문국은 육로를 통해 중국과 백제, 가야를 이었다. 대가야는 가야 북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과 금광의 개발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낙동강과 섬진강 수로를 활용하여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이는 대가야에서 생산된 토기, 철제품(무기·마구), 장신구(관·귀걸이)가 일본열도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야에서 생산된 철은 일본열도 각지로 수출되어 정치세력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유물은 옥전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리잔이다. 이는 서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중원 또는 북방을 거쳐 한반도 남쪽까

지 다다랐다. 신라 경주와 일본 오사카 등지의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잔도 이러한 루트를 통해 전달된 것이다. 이처럼 교역은 가야 문명의 토대가 되었고, 가야는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는 열린 공간이 되었다. 가야는 비록 작고 여럿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자율과 공존의 질서 속에서 완충지대, 교역의 장으로서 동아시아 강대국 사이에서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김재홍, 2017, 「고대 국가를 바라보는 시각, 자율과 통합」, 『한국상고사학보』 98, 한국상고사학회.
- 김창석, 2012, 「고대 교역장의 중립성과 연맹의 성립-3~4세기 가야연맹체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16.
- 박노자, 2010, 『거꾸로 보는 고대사』, 한겨레출판사.
- 윤선태, 2014, 「가야,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노태돈교수 정년기념논총1』, 세계절.
- 윤선태, 2019, 「민족·국가·발전 중심의 가야사 극복」,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국립중앙박물관.
- 하승철, 2019,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현황」, 『가야고분군 V』,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6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홍보식, 2019, 「가야와 삼국의 유통 네트워크」,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국립중앙박물관.





## I. 머리말

경주 토함산에 자리한 석굴암과 불국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불교 사찰로서, 한국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다. 석굴암과 불국사에 대한 관심은 일제강점기부터 크게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당시 조선총독부의 지원 아래에 대규모의 중수공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석굴암과 불국사는 국보로 지정되어 국가 문화재로서 높이 평가되어 왔다.

〈석굴암과 불국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1995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972년 발의된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의하여 세계유산(World Heritage)에 등재된 유산을 뜻한다. 세계유산은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니는 각국의 부동산 유산을 중심으로 등재되며,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복합유산(Mixed Heritage) 등으로 나누어진다. 한국에서는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세건을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으며, 2023년 〈가야고분군〉이 등재되어 총 16건의 등재 목록을 가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살펴 본 후, 석굴암과 불국사의 현황과 문화적 의의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II.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석굴암과 불국사〉

유네스코(UNESCO)는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약칭으로, 1945년 창설된 유엔(UN) 산하의 문화 관련 전문기구이다(도 1). 1945년 11월 런던에서 유네스코 창설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당시 모였던 44개국 정부 대표에 의해서 유네스코 헌장이 채택되었다. 이듬해인 1946년 11월에 유네스코 헌장에 비준서명한 20개 국가들에서 헌장 비준서를 영국 정부에 기탁하면서 최초의 국제연합전문기구로 발족했다.



[그림 1] 유네스코 로고

유네스코의 창설 목적은 ①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국제 사회 협력 촉진, ② 정의, 법치, 인권 및 인간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 제고, ③ 인류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이다. 유네스코는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문화 분야에

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 활동의 중점 추진목표는 ① 만인을 위한 질 높은 평생 교육, ② 지속적으로 개발가능한 유동적인 과학지식과 정책 수립과 진행, ③ 사회적, 윤리적 도전에 역점, ④ 포괄적인 지식 사회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구축 등이다.

현재 유네스코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제기구로서의 유네스코에서 사용되는 공식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등 6가지 언어이다. 2023년 9월 기준 유네스코에 가입한 국가들은 194개 회원국과 준회원 12개 지역이 있다. 유네스코의 현황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https://www.unesco.org/en>). 한국은 1950년 유네스코에 가입하였으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활동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https://www.unesco.or.kr/>).



[그림 2] 왼쪽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로고, 인류무형유산 로고, 세계기록유산 로고

유네스코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유산(Heritage)들을 등재 및 관리하고 있는데, 크게 부동산 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① “세계유산(World Heritage)”, 인류의 전통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②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각국 언어나 이미지로

기록된 ③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등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도 2). <석굴암과 불국사>는 이 중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이다. 각 유산들은 관련된 협약에 의거해서 등재 및 관리되며, 가장 먼저 등재가 시작된 것은 세계유산 분야이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운동은 1954년 이집트 정부가 아스완 하이댐(Aswan High Dam)을 건설하여 그 일대의 다양한 유적들이 댐 건설로 수몰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집트 정부는 1959년 아스완댐 건설지역의 수몰 유적 보호 문제를 유네스코와 협의하였으며, 이듬해인 1960년 아스완댐 공사를 시작하여 1970년 완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의 주도로 이 지역 유적 보호를 위한 전세계적 모금활동이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이어졌다. 특히 미국의 도움으로 1964년부터 1968년까지 진행된 아부심벨 사원의 이전공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제도 촉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네스코에서는 아스완댐 수몰유적과 같이 위협에 처한 세계유산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972년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를 설립했다. 세계유산 위원회에서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을 1972년 채택하고 1975년 협약을 발효하였다. 통칭 “세계유산협약”으로 알려진 이 협약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규정하고, ① 문화유산, ② 자연유산, ③ 복합유산 등 세 종류로 나누어 유산 목록 등재를 시작하게 하였다. 2023년 10월 현재 이 협약에는 195개국이 비

준했으며, 총 1,199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그중 문화유산은 993건, 자연유산은 227건, 복합유산은 39건이다(<https://www.unesco.org/en/world-heritage>). 그외에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인 “위험유산(World Heritage in Danger)”에는 우크라이나의 유산을 포함하여 현재 56건이 등재된 상태이다(<https://whc.unesco.org/en/danger/>).

세계유산협약에 의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World Heritage Site)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유적을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해당 유산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등재신청을 해야 심사가 진행된다. 해당 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세계유산지구 등재를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평가 기준은 총 10가지가 있다(표 1 참조). 이 중에서 평가기준 1번부터 6번까지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등재에 해당하는 것이며, 평가기준 7번부터 10번까지는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등재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는 복합유산(Mixed Heritage)으로 등재된다. 유네스코는 대상 유산의 학술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학술 비정부 기구와 협력하여 등재 심사를 진행하는데,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위원회(ICOMOS / 이코모스), 자연유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자문을 받아 실시하여 등재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1] 유네스코 세계유산 평가기준표 (유네스코 사이트 참조 정리)

	평가 내용	유산성격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문화유산
ii	오랜 세월을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서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문화유산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문화유산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문화유산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문화유산
vi	사건이나 실증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될 것을 권장).	문화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는 지역을 포함할 것.	자연유산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 사례.	자연유산
ix	육상, 만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자연유산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하는 것.	자연유산

〈석굴암과 불국사〉는 이중에서도 등재기준 (i)과 (iv) 항목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석굴암과 불국사〉의 등재 내용에 대해서 다음의 [표 2] 내용과 같이 정리해 놓았다.

유네스코 사이트의 내용은 1995년 등재 당시의 상황을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지만, 이후 석굴암과 불국사의 현지 유물 및 유적 조사와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석굴암과 불국사의 현황을 중심으로 문화적 의의를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석굴암과 불국사 등재내용 요약본

기준항목	내용
1 명칭	석굴암과 불국사(Seokguram Grotto and Bulguksa Temple)
2 국가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3 위치	경상북도(慶尙北道) 경주시(慶州市)
4 좌표	N35 46 60, E129 20 60
5 등재연도	1995년
6 참고번호	736
7 요약	석굴암(石窟庵)과 불국사(佛國寺)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고대 불교 유적이다. 석굴암은 불상을 모신 석굴이며, 불국사는 사찰 건축물이다. 두 유산은 모두 경주시 동남쪽의 토함산(吐含山)에 있으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 두 유산은 8세기 후반에 같은 인물이 계획해 조영하였으며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었다. 석굴암은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로 원형의 주실 중앙에 본존불(本尊佛)을 안치하고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나한상, 신장상 등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불국사는 인공적으로 쌓은 석조 기단 위에 지은 목조건축물로 고대 불교 건축의 정수를 보여 준다. 특히 석굴암 조각과 불국사의 석조 기단 및 두 개의 석탑은 동북아시아 고대 불교예술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힌다.

기준항목	내용
8 등재기준	기준 (i): 석굴암과 불국사는 신라인들의 창조적 예술 감각과 뛰어난 기술로 조영한 불교 건축과 조각으로 경주 토함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한국 고대 불교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기준 (iv): 석굴암과 불국사는 8세기 전후의 통일신라시대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건축과 조각으로, 석굴암은 인공적으로 축조된 석굴과 불상 조각에 나타난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 불국사는 석조 기단과 목조건축이 잘 조화된 고대 한국 사찰 건축의 특출한 예로서 그 가치가 두드러진다.
9 완전성	석굴암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불국사는 불법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 구현한 걸작으로, 이들 두 유산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불국사와 석굴암 전 영역과 두 유산이 위치한 토함산이 유산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10 진정성	석굴암 본존불과 그 주위 대부분의 석조 조각과 건축의 형태는 8세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진정성이 높다. 불국사 경내의 석조 유산은 부분적 보수 과정을 거쳤을 뿐 신라 시대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목조 건축물들은 16세기부터 보수와 복원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든 복원 사업은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전통 재료와 기술이 사용되었다.
11 본문	토함산 남동쪽 비탈에 있는 석굴암은 동해를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다.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인 751년에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짓기 시작해 혜공왕 10년인 774년에 완공됐다. 기록에 따르면 석굴암의 원래 이름은 석불사였다고 한다. 석굴암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고, 벽에는 39개의 불상들이 조각되어 있으며 한가운데에 본존불상이 놓여 있다. 석굴암은 전실(前室), 비도(扉道), 동형 주실(主室)로 구성된다. 전실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양쪽 벽에는 팔부신장(八部神將)이 각각 네 사람씩 새겨져 있다. 비도는 전실에서 주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비도의 입구 옆에는 두 사람의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이 서 있다. 비도의 좁아지는 부분 양쪽으로는 사천왕상(四天王像)이 각각 한 쌍씩 조각되어 있다. 주실의 입구 양쪽에 팔각형 돌기둥 두 개가 각각 세워져 있고, 본존불상은 주실의 중앙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에 놓여 있다. 주실의 입구 양쪽 벽에는 범천(梵天)과 제석천(帝釋天), 두 보살, 십나한이 새겨져 있다. 본존불상 뒤의 벽 한가운데에는 자비의 보살로 알려진 십일면관음보살상(十一面觀音菩薩像)이 새겨져 있다.



기준항목	내용
11 본문	<p>전실과 주실의 벽에 새겨진 불상들 아래 놓여 있는 돌에도 마찬가지로 부조가 새겨져 있다. 석굴암이 만들어진 당시에 십일면관음보살상 앞에 있었던 대리석 사리탑은 일제강점기 때 제거됐다. 본존불상 뒤의 벽에 새겨진 십일면관음보살상 위에는 거대한 원형 연판(蓮瓣)이 조각되어 있다. 이 원형 연판은 정면에서 보면 마치 본존불상의 후광인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연판 위쪽 벽에는 열 개의 감실들이 가로로 늘어서 있다. 감실 각각에는 보살이나 불자의 조각상이 놓여 있었으나, 현재 그 중 두 개가 없어진 상태다. 동형 천장을 구성하는 돌들은 주실 천장의 또 다른 연판을 향해 모아지는 모습을 하고 있다.</p> <p>본존불상인 석가여래좌상은 3.45m 높이로 연화좌(蓮花座) 위에 앉아 있다. 불상의 머리카락은 달라붙은 곱슬머리이며, 정수리에는 궁극의 지혜를 상징하는 육계(肉髻)가 돌기처럼 튀어나와 있다. 이마는 넓고, 초승달 같은 눈썹 아래로 반쯤 감은 눈은 동해를 응시하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 걸쳐져 왼팔과 가슴을 덮은 모양의 법복은 섬세하고도 현실적이다. 불상은 부좌 상태에서 항마촉지인이라는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지신(地神)을 소환해 자신의 깨달음을 증명할 때 취했던 동작이다. 금강역사상, 팔부신장상, 천부상, 보살상, 십나한상, 사천왕상 등의 다른 조각들도 모두 세부적인 자연스러움에 주의를 기울여 정교하게 조각되었다.</p> <p>석굴암의 본존불상이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걸작이라면, 불국사는 신라의 이상향인 불국토를 현세에 드러내고자 의욕적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다. 불국사는 석굴암과 동시에 만들어졌는데, 불국사의 축조를 시작하고 지휘한 사람 역시 석굴암을 만든 재상 김대성이었다. 호심이 깊었던 김대성은 현세의 부모를 기리며 불국사를 세웠고, 전생의 부모들을 기리며 석굴암을 지었다.</p> <p>이승에 부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은 신라의 오랜 꿈이었고, 신라 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바로 부처의 나라라고 믿었다. 때문에 불국사라는 이름 자체도 신라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다. 불국사는 말 그대로 부처님 나라의 사찰을 뜻한다. 이것은 곧 불국사가 부처님의 나라가 현세에 실현된 낙원이라는 의미다.</p> <p>불국사 경내는 이승에 실현된 불교적 이상향이라 여겨졌다. 석단(石壇) 위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들은 세 구역으로 구분된다. 비로자나불의 전당인 비로전, 득도의 전당인 대웅전, 지복의 전당인 극락전이 그것이다. 세 구역은 하나의 현세 공간과</p>

기준항목	내용
11 본문	<p>두 개의 천상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 순수한 부처의 나라로, 비로자나불이 존재하는 현세, 아미타불의 낙원, 석가모니불의 사바세계가 바로 그것이다.</p> <p>비로전, 극락전, 대웅전을 포함해 석단 위의 공간은 곧 부처의 나라이며, 석단 아래의 공간은 이승이다. 이 두 세계는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 두 쌍의 다리로 연결된다. 석단, 석교(石橋), 그리고 대웅전 앞에 세워진 석가탑과 다보탑은 신라 시대의 우수한 석공 기술을 보여 준다. 석굴암과 마찬가지로 불국사는 손으로 다루기 힘든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옛날에 불국사에는 토함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로 만들어진 구품연지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 구품연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토함산의 물이 흘렀던 수구의 흔적이 아직까지 석단에 남아 있다.</p> <p>1592년 임진왜란 당시 불국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목조건물이 모두 불에 타버렸지만, 다행히 석단, 석교, 석탑, 등(燈), 금으로 도금된 청동 불상들은 무사히 남았다. 오늘날 볼 수 있는 불국사의 건축물은 1969년부터 1973년 사이에 시행된 복구 작업을 통해 부분적으로 재건된 것이다. 복구는 불국사 유적의 발굴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신라 시대 당시의 대규모 복합 건축물을 재현해 내지는 못했다. 불국사의 중심에 위치한 대웅전 앞뜰에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동서로 놓여 있다. 통일신라 시대 이래 사찰의 주 건물 앞에는 동일한 외관을 가진 한 쌍의 탑을 세우는 것이 관례였으나, 다보탑과 석가탑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p> <p>석가탑과 다보탑에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석가모니가 영취산(靈鷲山)에서 설파할 때 보배로운 탑이 땅에서 솟아났고, 이미 깨달음을 얻은 다보여래가 그 탑 위에 나타나 석가모니의 설법을 증명했다. 그리고 다보여래와 석가모니는 탑 안에 나란히 앉았다는 것이다. 다보탑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다보여래를, 석가탑은 석가모니를 상징하고 있다. 폭 6.7cm, 길이 6.2m의 두루마리에 적힌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 또한 주목할 만하다. '흠 없이 순수한 빛의 위대한 다라니경'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유물은 1966년에 석가탑의 2층에서 발견됐다. 8세기경에 만들어진 이 경전은 목판으로 인쇄된 경전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p>

\* 링크: <https://heritage.unesco.or.kr/%ec%84%9d%ea%b5%b4%ec%95%94%ea%b3%bc-%eb%b6%88%ea%b5%ad%ec%82%ac/>

### Ⅲ. 석굴암과 불국사의 현황과 문화적 의의

오랫동안 석굴암과 불국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1281년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내용과, 불국사의 사적을 기록한 『불국사사적(佛國寺事蹟)』(1708) 및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1740) 등으로 통해서 751년에 김대성에 의해서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특히 『삼국유사』 권 5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에서는 “경덕왕 10년(751) 김대성이 공사를 착공하여 해공왕대에 완성했다”고 하여, 김대성이 전생과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이 두 사찰을 지은 것으로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것이 토함산 위의 석굴암이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것이 불국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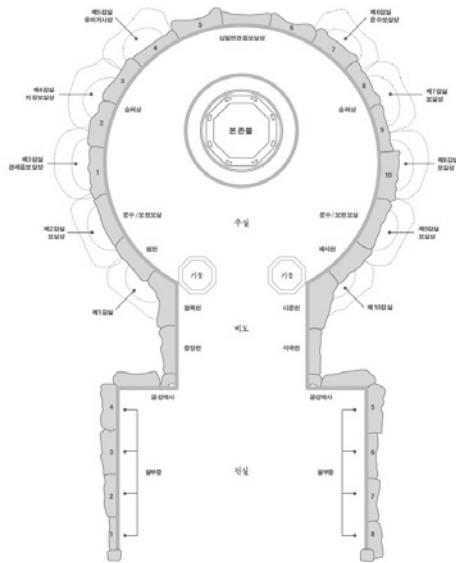
이러한 석굴암과 불국사의 창건 연대는 1966년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묵서지편들이 공개되면서 수정되어, 현재는 742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도 알려진 석가탑은 1966년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내부에서 각종 사리장엄구들과 경전 및 묵서지편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외의 경전과 묵서지편들은 1997년 보존처리가 시작되어 2007년에야 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07년에 공개된 석가탑 출토 묵서지편들은 고려시대에 탑을 중수하면서 봉안한 기록들로서, 1024년 기록된 「불국사무구정광탑중수기(佛國寺無垢淨光塔重修記)」와 1038년에 기록된 「불국사서석탑중수형지기(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등이 있다. 이 기록들에 의하면 불국사는 경덕왕 원년인 742

년에 창건되어 해공왕 연간(765-780)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일연의 삼국유사보다 200여년 빠른 새로운 문서가 석가탑 안에서 발견되면서, 이제는 묵서지편의 기록을 따라 불국사의 창건을 742년으로 보게된 것이다. 그렇지만 석굴암의 창건이 742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조각양식으로 볼 때, 석굴암의 주실은 8세기 중후반경, 즉 불국사의 창건보다는 좀 더 늦은 시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굴암과 불국사는 토함산 자락의 위와 아래에 함께 자리잡은 사찰로서, 상사(上寺)와 하사(下寺)의 구성을 보여준다. 지금은 석굴암을 갈 때, 새로 난 도로를 따라서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두 절이 별개의 사찰이라고 생각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옛날에는 불국사에서 산길을 걸어 올라가서 석굴암으로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석굴암으로의 등산은 불국사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토함산이라는 경주 동남쪽의 성산에 상사와 하사로서 함께 자리한 이 두 절은 신라 왕실과 관련된 중요한 사찰이었으며,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사찰이기도 하다.

아쉽게도 현재의 석굴암과 불국사는 모두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듭하면서 창건 당시와는 여러 가지로 달라진 부분이 많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주도로 진행된 석굴암과 다보탑 중수는 사찰의 원상(原狀)을 상당히 훼손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여러 가지 학술적 난제를 만들었다. 이후 1970년대에도 국가적 지원 아래에서 두 사찰에 대한 복원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두 사찰의 역사와 원상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탑과 다보탑, 석굴암의 수많은 불교 존상들, 불국사에 남아 있는 다

수의 불교조각과 유물들은 통일신라시대 불교 미술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들로서, 원상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부분도 많다. 여기에서는 석굴암과 불국사의 가람배치와 현존 유물을 중심으로 그 특징과 문화적 의의를 살펴 보겠다.



[그림 3] 석굴암 배치도(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13쪽에서 전재)

먼저 석굴암은 토함산 위에 자리한 석굴사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석굴사원이라기보다는 화강암으로 지은 석조건축물이다. 현재의 석굴 구조는 방형(方形)의 전실(前室)과 통로, 그리고 원형(圓形)의 주실(主室)로 구성되어 있으며(도 3), 방형 전실 앞쪽에는 현대에 세운 목조전각이 자리하고 있다. 석굴암의 구조 중에서 가장 독특한 원형 주실은 궁륭형의 천정을 가진 구조로서, 통일신라시대 석조

건축 양식의 우수성을 잘 보여준다. 주실 가운데에 자리한 본존을 중심으로, 뒤쪽에는 십일면관음보살상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위에는 10대나한상과 문수보살, 보현보살, 범천, 제석천 등 다양한 존상들이 에워싸고 있다. 화강암으로 제작된 주실의 조각들은 대부분 8세기 국제 양식을 따라 조형된 것으로, 창건기의 작품으로 보인다. 방형 전실로 이어지는 통로 부분에는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고, 전실 부분에는 한쌍의 금강역사상과 팔부중상이 배치되어 있다. 조각 양식으로 보면 팔부중상은 주실보다는 좀 더 늦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불국사 가람배치 현황 (2023년 구글 지도에서 전재)

석굴암 주변의 목조 건축물은 대부분 근현대기에 세워진 것이지만, 석굴암에서 조금 떨어진 산 능선에 세워져 있는 석굴암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석굴암의 구조는 통일신라시대의 건축물 중에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와 도상 배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본존 불상은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의 정각상(正覺像)과 매우 깊은 관련을 가진 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상 해석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주존의 도상은 석가, 혹은 『화엄경』에 의거한 비로자나불, 혹은 아미타상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대부분 8세기 중반 통일신라 불교계에서 가장 널리 유행했던 『화엄경』과 관련된 석가, 혹은 비로자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석굴암 주실들의 조각은 8세기 중반경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 양식을 대표하는 중요한 상들로서, 통일신라시대 불교 미술 연구의 중요한 기준작이자 대표작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불국사의 구조는 석굴암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논란이 많다. 현재의 불국사는 불이문으로 들어가서 강원을 중심으로 하는 승방 구역과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일주문과 천왕문을 지나서 대웅전으로 이르는 일반인 배람 사찰 구역이 구별되어 있다(도 4). 또한 유네스코 등재 이후인 2018년에는 불국사박물관이 개관했다. 불국사의 가람 배치 변화는 근대기 이후 꾸준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창건당시의 원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주요 전각인 대웅전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청운교와 백운교, 연화교와 칠보교, 그리고 석가탑과 다보탑 등과 같은 통일신라시대의 석조 건축물들이 남아 있어서 창건기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림 5] 불국사 석가탑 출토 사리장엄구 일괄. 통일신라-고려. 불국사박물관 소장

불국사의 유물 중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석조 건축을 대표하는 석가탑과 다보탑은 통일신라시대의 쌍탑가람배치를 보여주면서도 서로 다른 양식의 탑을 함께 세워서 주목된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다보탑만을 해체수리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사리장엄구와 불상, 사자상 등을 무단반출했는데, 아쉽게도 그 유물들은 지금 행방불명된 상태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다보탑에 특히 주목했던 이유는 아마도 일본에 남아 있는 다수의 목조다보탑들의 원형이 불국사 다보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다행히 석가탑은 일제강점기에 수리하지 않아서 창건기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탑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1966년 석가탑 수리 도중에 발견된 사리장엄구들 [그림 5] 사이에 함께 봉안되어 있던 고려시대의 묵서지편들이 2000년대에 공개되면서, 석가탑이 11세기경에 지진으로 무너져서 대대적으로 보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석가탑에서 발견된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본이라고 알려진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제작 연대

논란이 한동안 일어났는데, 지금은 종이의 지질과 글자체, 목서지편 내의 서술 상황 등으로 볼 때 창건기인 742년경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함께 발견된 사리장엄구들 중에서 일부 유물은 11세기에 석탑을 중수하면서 새로 만들어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국사의 대웅전과 극락전 등의 건축물은 조선시대에 세워진 건물이지만, 석조기단부는 창건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또한 대웅전과 비로전에 봉안된 주존들은 통일신라시대의 보기드문 대형 금동불상들로서,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와 불상 주조기법, 미술 양식들을 대표하는 작품들로서 중요하다. 이외에도 불국사에는 창건기인 8세기 이후 지금까지의 다양한 불교 문화재들이 다수 남아 있다. 2018년 박물관의 개관 이후, 석가탑 출토 사리장엄구를 비롯한 불국사와 석굴암 주변의 문화재들은 박물관에서 관리 및 전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석굴암과 불국사>의 역사적,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1966년 석가탑의 보수 공사 이후, 1969년에는 불국사 복원위원회가 구성되어 1970년부터 1973년까지 대규모의 사찰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공사과정에서, 주춧돌과 빈터만 남아 있던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경루(經樓), 회랑(廻廊) 등이 복원되었고, 대웅전, 극락전, 범영루(泛影樓), 자하문(紫霞門) 등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1975년에는 일주문이 새로 건립되었고, 1976년에는 나한전도 새로 건립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최근에는 2008년에서 2009년까지 다보탑의 수리공사가 진행되었고, 2012년부터 2015년에는 석가탑도 다시 해체 복원이 이루어져서 사리장엄구가 재봉안 및 조

사되기도 했다. 현재 불국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로서 경상북도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사찰 중 하나이며, 석굴암은 불국사 산하 암자로서 관리되고 있다. 이 두 사찰은 현대 한국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사찰 중 하나이다.

#### IV. 맺음말

이상에서 간단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의 <석굴암과 불국사>의 현황과 문화적 의의를 살펴 보았다. 통일신라시대 8세기에 창건된 두 사찰은 당시 미술과 문화의 국제적 양상과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사찰이며, 역사적으로도, 불교 사상적으로도, 미술양식사적으로도 가장 대표적인 위상을 가진 곳이다. 아직까지 석굴암과 불국사의 역사와 미술사적 해석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의 이견도 많고 연구과제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 두 유적이 통일신라시대 8세기에 발달한 뛰어난 국제적 문화 양식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곳이라는 점을 확실하다. 이 두 유적은 우리나라의 첫번째 유네스코 등재 유산이자 현대의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곳으로서도 문화적 위상이 높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 좀 더 많은 국내외의 세계인들이 이 곳을 관람하면서 통일신라시대 문화와 한국의 전통 불교 문화를 향유하고 폭 넓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맺는다.

## 〈주요 참고문헌 (출판연대순)〉

- 『三國遺事』.  
 『佛國寺事蹟』.  
 『佛國寺古今創記』.  
 朝鮮總督府 編, 1938, 『佛國寺と石窟庵』, 朝鮮寶物古蹟圖錄 1, 京城: 朝鮮總督府.  
 황호근, 1953, 『불국사와 석굴암』, 경주: 以文社.  
 文化財管理局 編, 1967,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 文教部 文化財管理局.  
 韓國佛敎研究院 編, 1974, 『石窟庵』, 一志社.  
 韓國佛敎研究院 編, 1974, 『佛國寺』, 一志社.  
 文化財管理局 編, 1976, 『佛國寺: 復元工事報告書』, 慶州: 慶州市.  
 黃壽永, 1979, 『불국사와 석굴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編, 2000,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21, 石窟庵의 新研究, 慶州: 慶州市; 新羅文化宣揚會.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2007, 『慶州 新羅 유적의 어제와 오늘: 석굴암·불국사·남산』,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소장 유리원판전 2,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불교문화재연구소 편, 2009, 『불국사 삼층석탑 목서지편』, 불교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편, 2009, 『불국사 석가탑 유물』 전 4권, 국립중앙박물관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불국사 다보탑 수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강희정, 2012, 『나라의 精華, 조선의 表象: 일제강점기 석굴암론』, 서강대학교 출판부.  
 경주시 · 불국사박물관 ·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14, 『석굴암 기초자료집성』 석굴암 학술총서 제1권, 불국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7,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수리보고서』 전 2권, 국립문화재연구소.

- 불국사박물관, 2018, 『佛國寺』, 불국사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020, 『석굴암, 그 사진』, 문화재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0, 『평화를 심다 세계를 품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특별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2, 『석굴암 석굴 원형연구』, 문화재청 · 경주시.







## 1.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

2004년 7월 1일 중국 소주에서 개최된 제2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북한의 고구려 벽화고분과 중국 경내 고구려 유적이 동시에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북한의 고구려 유적의 공식명칭은 ‘고구려 고분군(Complex of the Koguryo Tombs)’으로 평양과 남포, 평안남도, 황해남도 일원의 고분 63기가 대상이며, 대표적인 벽화고분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한편 중국 경내 고구려 유적의 공식명칭은 ‘고구려 왕성, 왕릉 및 귀족무덤(Capital Cities and Tombs of the Ancient Koguryo Kingdom)’이며, 환인과 집안 일대의 도성 유적 3곳과 광개토태왕릉비, 왕릉 13기, 귀족 무덤 26기가 포함되었다.

고구려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축하할만한 일이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보다 4년 전인 2000년 5월 북한은 고구려 벽화고분을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잠정목록으로 제출하였으며, 유네스코 전문가들의 현지 조사 등을 거쳐 2002년 1월 정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중국인 전문가가 포함된 세계유산위원회 현지조사단은 등재를 ‘반려’하고 2차 현지 조사와 북한과 중국의 공동등재를 권고하였다. 이에 북한은 공동등재를 거부하고, 2003년 5월과 6월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등재가 반려되었다. 반려 사유로는 북한과 중국 내 고구려 유적들에 대한 적절한 비교 연구가 없었다는 점, 등재대상 고분들을 실사자에 게도 개방하지 않은 점, 전동명왕릉 등 일부 고분들의 진정성 결여,

고분 보존 및 관리 상태 부적절 등을 제시하였는데, 일부는 타당한 지적이라 할 수 있으나 중국의 개입으로 인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은 2003년 1월 환인과 집안 일대의 고구려 왕성, 왕릉 및 귀족무덤을 주제로 세계유산 등재신청서와 잠정목록을 급하게 제출하였고, 같은 해 9월 현지 조사를 거쳐 2004년 7월 1일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과 동시에 세계유산에 등재하게 되었다. 이 무렵 중국은 2002년부터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귀속시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실행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세계유산 신청서 첫머리에도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세력이자 소수 민족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같은 맥락의 관점을 읽을 수 있다.

고구려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과정을 보면 중국이 2002년 동북공정을 실시할 당시에는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의도가 없었는데, 북한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급하게 대응했음을 알 수 있다.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귀속시키고자 했던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중국은 북한의 신청서가 반려되자 공동등재를 목표로 하였으나, 북한의 강경한 반대와 다른 국가들의 비판에 부딪히자 동시 등재로 입장을 바꾸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중국의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는 처음부터 다분히 정치·외교적 성격을 띤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신미아 2011).

## 2. 고구려 고분의 입지와 분포

고구려의 고분은 오늘날 중국의 요녕성 환인현 일원, 길림성 집안시 일대와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및 황해도 일원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남한지역에도 적지만 고구려 고분이 조사되고 있다. 고구려 고분은 예외적으로 1~2기가 따로 분포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십 또는 수백 기, 많게는 수천 기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는 것이 특징인데, 초기 도성이 위치한 환인현 일원에서 750기의 고분이 조사되었으며, 두 번째 도읍이 위치한 집안시 통구분지에는 1만 기가 넘는 많은 수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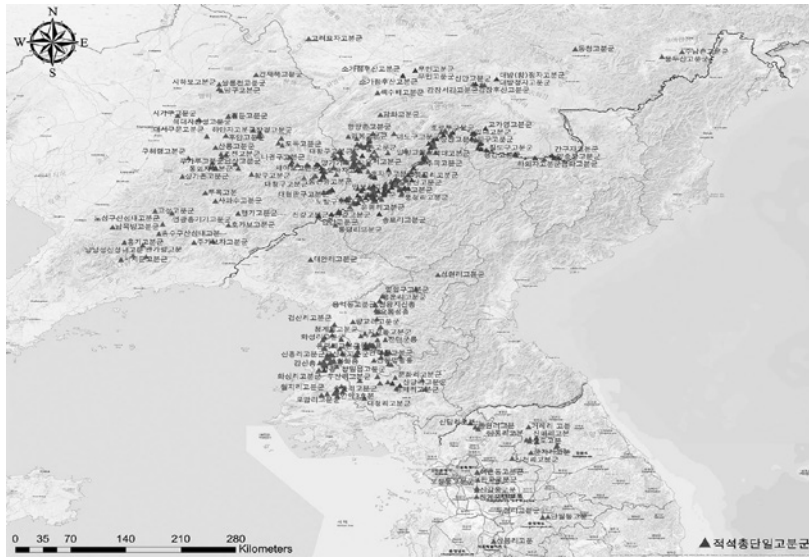


[그림 1] 집안 통구분지 산성하고분군 전경(©최종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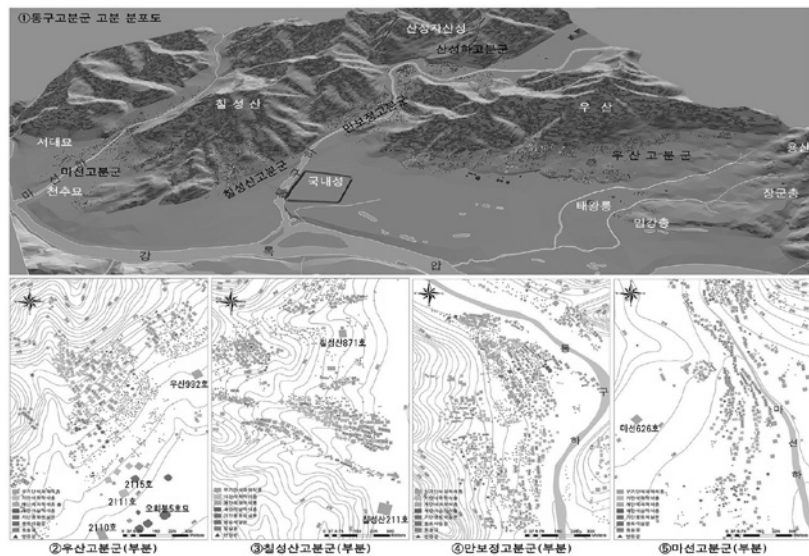
고구려는 처음부터 돌로 고분을 축조하였는데, 이는 주변 제 민족의 묘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고구려의 고분은 축조재료에 따라 강돌이나 다듬은 산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과 커다란 판석이나 할석으

로 무덤 방을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봉토석실분으로 대별되며, 적석총과 봉토분 모두 평면형태는 방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매장 방식에 따라서는 곁을 짜고 시신을 안치한 후 뚜껑을 덮은 수혈식 묘제와 하나 이상의 무덤 방을 만들고 묘도와 연도를 설치한 횡혈식 묘제로 나뉜다. 고구려 고분은 고구려 전역에 걸쳐 분포하는데, 도성이 위치한 혼강유역과 압록강유역, 대동강유역에 집중되어 분포한다. 대부분의 고분군은 적석총과 봉토분이 혼재하는 양상이나 초기 도읍이 위치한 혼강유역과 압록강 중상류지역에는 적석총으로만 구성된 고분군이 분포하며, 대동강유역에도 적석총 단일 고분군이 일부 확인되기도 한다[그림 2].

고분은 주로 강안대지나 경사가 완만한 산기슭에 입지하는데, 여러 개의 고분이 열을 지어 분포하는 열상배치를 특징으로 한다[그림 3]. 또한 고분의 한 변에 연접하여 다른 고분을 축조하는 연접묘도 적지 않은데, 5~7기의 적석총이 연접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지만 10기가 넘는 적석총이 연접된 경우도 있으며, 예외적으로 적석총과 봉토분이 연접된 경우도 확인된다. 열상배치의 경우 산기슭의 고분군은 경사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축조되고, 강안대지의 고분군은 하천의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되며, 하천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축조된 것이 일반적이다. 통구분지 고분군의 경우 중대형 고분은 이러한 열상배치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기도 하며, 초대형 왕릉급 고분은 군집과 분리된 독립된 묘역을 갖는 특징을 보인다. 통구분지 고분군의 경우 몇 개의 대규모 고분군 안에 여러 개의 작은 군집이 확인되고, 각각은 일정한 고분군 조성 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최종택 2015).



[그림 2] 고구려 고분 분포도(©최종택, 초록색 표시는 적석층 단일 고분군)



[그림 3] 집안 통구분지 고분군 분포도 및 열상배치(©최종택)

### 3. 적석층의 묘제와 장제

적석층은 지상에 돌을 깔고 그 위에 각을 놓고 돌을 덮어 마감한 독특한 구조인데, 당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문헌에도 고구려 사람들의 무덤 및 장례풍습에 대한 기록이 전한다. 『三國志』魏書 東夷傳 高句麗條에는 고구려 사람들의 무덤 및 장례풍습에 대하여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줄지어 심었다’라고 하였으며<sup>1)</sup>, 고구려와 풍습이 비슷한 부여의 경우에도 ‘각은 있으나 관은 없다’라고 무덤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sup>2)</sup>.

고구려 적석층의 구조와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크기는 외형을 기준으로 한 분류와 매장주체부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초기의 연구에서는 특징적인 외형을 기준으로 기단의 유무에 따라 무기단식과 기단식 적석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부 내장주체부의 형태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형식을 구분하였다. 가장 먼저 적석층의 형식분류안을 제안한 북한 연구자들의 경우 무기단적석층-기단적석층-곽실적석층-묘실적석층으로 구분하거나(주영현 1962), 강돌돌각담무덤-돌기단돌무덤-연도표시가 있는 돌기단돌무덤-돌간돌무덤 등으로 구분하였다(정찬영 1973).

1) ‘男女已嫁娶，便稍作送終之衣。厚葬，金銀財幣，盡於送死，積石爲封，列種松柏’(『三國志』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2) ‘其死，夏月皆用冰。殺人徇葬，多者百數。厚葬，有槨無棺。’(『三國志』魏書 東夷傳 夫餘條) 7세기 초에 편찬된 『梁書』에도 같은 내용이 전한다(‘已嫁娶便稍作送終之衣。其死葬，有槨無棺。好厚葬，金銀財幣盡於送死。積石爲封，列植松柏。兄死妻嫂。’ 『梁書』高句麗傳)。

[표 1] 적석총의 형식분류안 각종(강현숙 외 2020: 도 V-1 수정)

	수혈식장법				형구	형질식 장법						
	무기단적석		기단적석			관실적석		묘실적석				
주영현 (1962)	무기단적석		기단적석		관실적석		묘실적석					
정찬영 (1973)	강돌들각담		돌기단, 수혈식		돌기단 연도표시		돌칸돌무덤					
張雪岩 (1979)	석광적석묘		계대식적석묘				방단계제석실묘					
方起東 劉振華 (1979)	적석석광묘		유단적석석광묘		계대석광분		계단적석 석실 동실					
李殿福 (1980)	적석묘		방단적석묘		방단계단적석묘		방단계단적석실묘		방단봉석적석묘			
陳大爲 (1981)	원구식		계대식적석묘		계대식 관실		계대식 석실		봉석석실			
田村晃一 (1982)	석곽적석총				연도부석곽		석실적석총					
	방대형분구		(1)기단	계단	단장	합장	중릉상 천정	석실지상	석실지표			
方起東 (1985)	적석묘		기단 방단적석묘		계단적석묘(묘광)		계단적석묘 묘실					
魏存成 (1987)	무단석광묘		방단석광묘		방단계제석광묘		방단계제석실묘		방단석실묘			
지병목 (1987)	수혈식적석총				연도부기단		석실적석					
	무기단		방단		기단		연도무		연도유	기단석실 봉석석실		
孫仁杰 (1993)	석광적석묘				광실적석묘		적석석실묘					
東潮 (1995)	무기단 석곽		방단부 원구석곽		방단석곽		방단 계제석곽		방단 계제석곽 연결			
方起東 (1996)	적석석광묘		기단적석석광묘		계단적석석광묘		계단적석석실묘					
손수호 (2001)	무기단돌곽		기단돌곽				기단돌칸		계단돌칸	돌칸돌무덤		
鄭永振 (2003)	무기단석광적석묘		방단석광적석묘		방단계제석광적석묘		방단계제석실적석묘		방단석실적석묘			
김용성 (2005)	목곽묘(단곽식 / 주부곽식)				목실 (단실, 유부곽식, 유이실식)		석실(단실식, 유이실식)					
	무단원구	무단 방대형	방단방대형	방 단 중 단	계 단 중 단	계 단 중 단	방 단 중 단	방 단 중 단	계 단 중 단	계 단 중 단	지표방대형	
여효규 (2012)	무기단묘곽		기단묘곽		계단묘곽		방단곽실		계단곽실	계단석실	봉석석실	
강현숙 (2013)	무기단목곽		기단 목곽		(계단)		기단		계단	기단	계단	봉석석실 동실

이후 중국의 연구자들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형식분류안을 제시하였는데, 石壙積石墓-階台式積石墓-方壇階梯石室墓(張雪岩 1979), 積石石壙墓-有壇積石石壙墓-階壇石壙墳-階壇石室積石墓-階壇洞室積石墓(方起東·劉振華 1979), 積石墓-方壇積石墓-方壇階梯積石墓-方壇階梯石室墓-封石洞室墓(李殿福 1980), 圓丘式積石墓-階台式積石墓-階台式槨室積石墓-階台式石室積石墓-封石洞室묘(陳大爲 1981)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이러한 분류안은 無壇石壙墓-方壇石壙墓-方壇階梯石壙墓-方壇階梯石室墓-方壇石室墓 등과 같은 분류안(魏存成 1987)으로 조정되었으나, 이후 積石石壙墓-積石壙室墓-積石石室墓(孫仁杰 1993)와 같이 매장주체부에 壙室을 추가하는 안이 제시되었는데, 광실의 구체적인 형태로 목실의 존재를 제안하여 이후 연구에서 매장주체부의 한 형태로 木室을 추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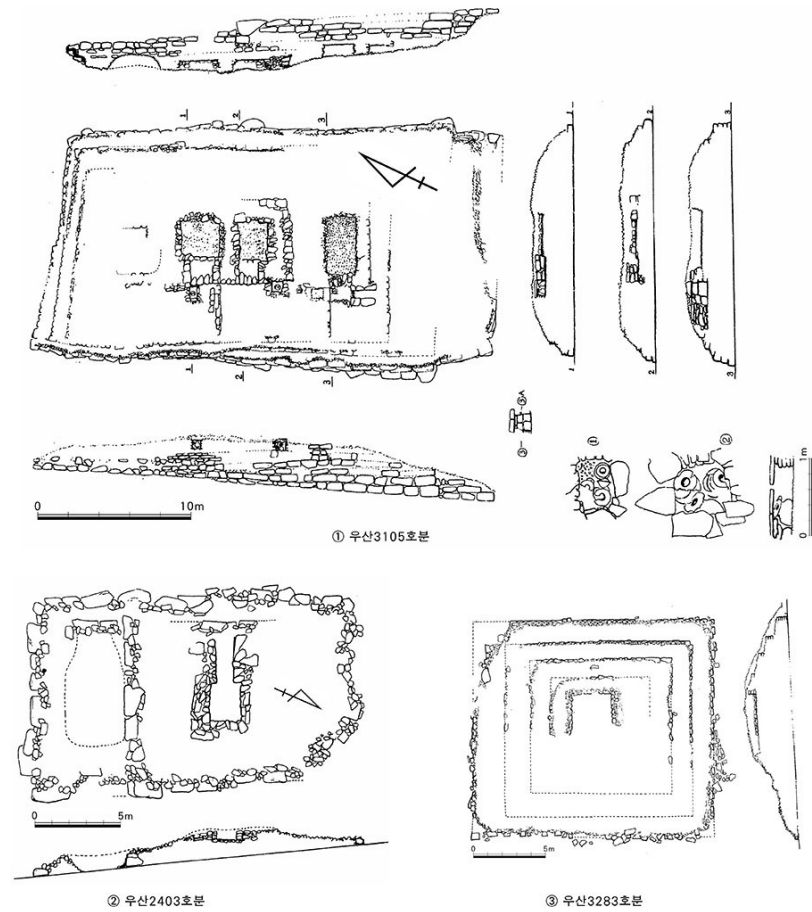
일본의 연구자들도 비슷한 개념의 형식부류를 하였으나 田村晃一(1982)은 적석총의 규모와 등급을 반영하는 적석총의 외형과 시간적 변화를 반영하는 내부구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며, ‘方台形石槨積石塚-基壇形石槨積石塚-階壇形石槨積石塚-羨道付石槨積石塚-石室積石塚’과 같은 분류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東潮는 그간의 형식분류안을 종합하여 ‘無基壇圓丘石槨積石塚-方壇付圓丘石槨積石塚-方壇石槨積石塚-方壇階梯石槨積石塚-方壇階梯石槨連接積石塚-方壇階梯石室積石塚-方台形石室積石塚’과 같은 형식분류안을 제시하였다(東潮·田中俊明 1995).

한국의 연구자들도 대체로 북한이나 중국 및 일본 연구자들과 비슷한 형식분류안을 제시하였는데, 강현숙(2000)은 ‘無基壇石槨積石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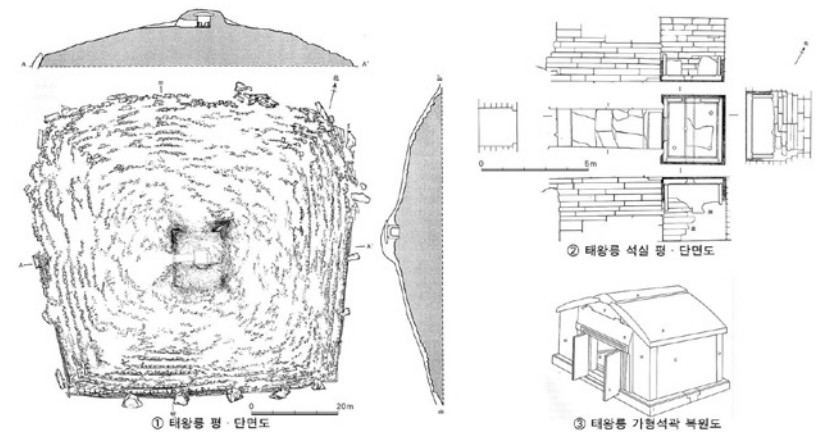
-基壇石槨積石塚-階壇石槨積石塚-石室積石塚'과 같은 분류안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에는 '무기단목곽적석총-무기단석실적석총-기단목곽적석총-기단목실적석총-기단석실적석총-계단목실적석총-계단석실적석총'등 매장주체부와 외형을 함께 고려한 분류안을 제시하였다(강현숙 외 2020). 한편 김용성(2005)은 고구려 적석총에 대한 기존의 형식분류안을 검토하고, 분제(외형)과 묘제(매장주체부)를 구분한 형식분류안을 제시하였는데, 기존 연구자들과는 달리 분구의 외형이 계단식인 경우에도 매장주체부가 설치된 부분까지를 기단부로 설정하고, 매장부를 덮은 봉석부를 분구로 구분하였다. 기단부는 단일 층으로 구성된 방단형과 여러 층으로 구성된 층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층단형은 축조 방법에 따라 계장식과 계단식으로 구분하였다. 봉석부는 형태에 따라 원구형과 방대형, 계단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목곽, 목실, 석실로 구분하였는데, 목곽은 그 수에 따라 단곽식과 주부곽식, 목실은 단실과 부곽 및 이실의 존재에 따라 유부곽식, 유이실식으로 구분하였으며, 석실은 단실과 유이실식으로 구분하였다.

이상과 같은 적석총 형식분류안의 공통점은 외형(분형)과 매장주체부(묘형)의 특징을 조합하는 것으로 김용성의 분류안이 가장 체계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석총의 조사가 매우 부진하며, 기존에 조사된 고분의 경우에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 자료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매장주체부의 위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계단식 적석총의 경우 어디까지를 기단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적석총의 분형은 무기단식, 기단식, 계장식, 계단식 등으로 구분하는 것

이 현실적이다. 묘형에 대해서는 장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곽과 목실, 석실의 분류안이 제안된 이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목실의 존재를 인정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목실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에도 그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에 차이가 있다. 목실의 존재를 처음 제안한 손인걸은 장구의 존재를 통해 목곽과 목실의 존재를 주장했지만 장구의 존재만으로 목곽과 목실의 구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곽과 실의 차이는 출입구가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며, 기존에 광실묘 또는 연도부석곽 등으로 표현된 구조를 목실로 이해할 수 있다(그림 4). 목실의 지붕구조에 대해서는 태왕릉의 가형석곽을 옆두에 두면 맞배식 지붕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지붕에 초분류를 얹은 초가집 형태를 상정하기도 하지만(孫仁杰 1993), 대부분의 광실묘에서 기와가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기와를 얹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5).



[그림 4] 집안 통구분지 우산고분군 목실적석총 각종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도 6, 8, 9)



[그림 5] 태왕릉 및 석실 평단면도 및 기형석곽 복원도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도 173, 174, 195, 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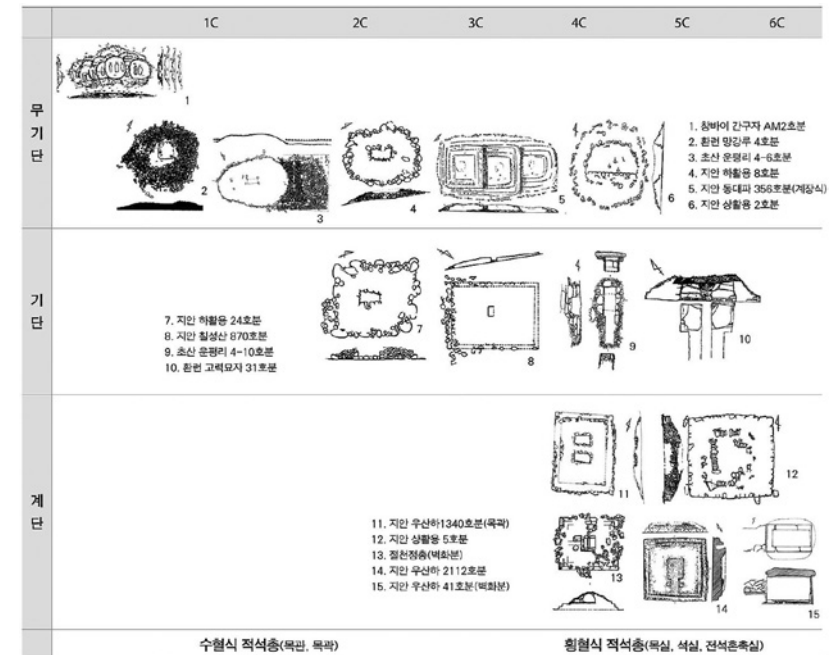
그밖에 석실이 지상에 위치한 소형의 봉석동실묘를 적석총으로 이해하고 무기단석실적석총으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고분은 커다란 판석으로 석실을 축조하고 외부를 돌로 마감한 형태인데, 소형 봉토석실분의 봉토부가 유실된 경우와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우산고분군의 집석공로 발굴조사보고서 분석을 통해 기존에 동실묘로 분류되었던 고분들의 상당수가 봉토석실분으로 밝혀진 점(최종택 2015)으로 미루어 무기단석실적석총으로 분류된 고분의 상당수는 봉토부가 유실된 석실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적석총의 구조와 문헌기록 등을 고려할 때 적석총의 축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닥을 정지하고, 강자갈 또는 할석을 깔아 지면을 정지한다. 기단식 적석총의 경우 외면에는 치석된 커다란 석재를 두르고, 내부에 할석을 깔아 지면을 정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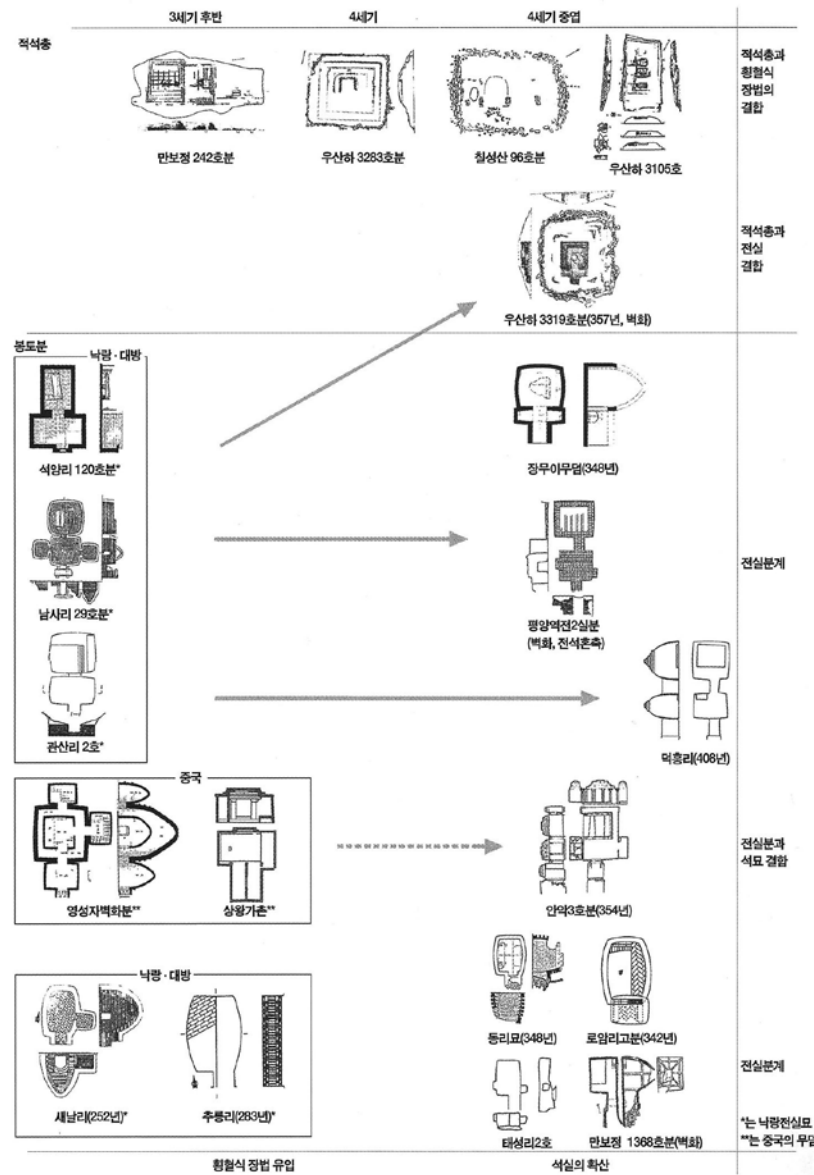
다. 계장식 적석총의 경우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또는 언덕 위에서 아래쪽으로 계장을 추가하여 기단부를 확장한다. 계단식의 경우 기단의 폭을 줄여가면서 층단부를 조성하는데, 중대형분의 경우 3~7단을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단부 위에 목곽 또는 목실 및 석실을 설치한다. 목곽의 경우에는 벽체를 축조하면서 바깥쪽으로 석재를 쌓아 마무리한 후 목곽 내부에는 피장자와 부장품 등을 넣고 목재를 이용해 목곽을 덮은 후 다시 석재를 덮어 마감한다. 목실의 경우도 목곽과 유사한 과정으로 생각되지만 목곽의 한쪽 면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맞배식 지붕에 기와를 덮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왕릉급 고분의 경우 칠성산871호분, 임강총, 우산2110호분, 칠성산211호분, 서대묘, 우산992호분, 마선2100호분 등이 이와 같은 가형목실에 기와를 덮은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천추총과 태왕릉 단계에서는 석실 내부에 가형석곽이 확인된다. 태왕릉의 경우 고분의 전체 크기에 비해 석실이 매우 협소한 점 역시 기존의 가형목곽을 석곽으로 대체하는 과도기적인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장군총 단계에 이르러 전체 분형에 비해 석실의 규모가 커지는 형태로 석실적석총의 구조가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적석총의 모형은 목곽 → 목실 → 석실, 분형은 무기단식 → 기단식 → 계장식 → 계단식 순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그 변천 과정은 세 시기로 구분된다[그림 6]. 전기는 압록강 유역에 적석총이 축조되기 시작하는 기원전 2세기부터 3세기대까지이며, 주로 무기단식적석총이 중심이고, 매장주체부는 목곽이 주를 이룬다.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는 계장식적석총이 축조되고, 1세기경에는 방형의 기단식적석총이 축조된다. 중기는 4~5세기대로 계단식

적석총이 축조되는 시기로 매장주체부는 목실과 전실, 석실 등 횡형식 구조가 주를 이룬다. 3세기 말, 늦어도 4세기 초에는 계단식목실 적석총이 축조되기 시작하고, 4세기 중엽 이후에는 계단식석실적석총이 축조되어 4세기 후반에 크게 확산된다. 후기는 6세기 이후에는 석실봉토분이 주를 이루며 적석총은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축조된다(강현숙 외 2020: 172-173). 한편 우산3319호분은 계단식적석총이면서 연도가 달린 전실분인데, 천장석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목개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6] 적석총의 전개와 횡형식 장법의 등장(강현숙 외 2020: 그림 V-21)



[그림 7] 횡혈식 장법의 수용과 정착 및 확산(강현숙 2013: 그림 4-2)

#### 4. 봉토석실분의 묘제와 장제

봉토석실분은 지상에 석실을 축조하고 방대형의 봉분을 구축한 형태로 이른 시기에는 적석총과 같은 형태의 기단을 갖춘 기단봉토석실분도 확인되는데, 횡혈식 장법이 채택되고 봉분을 흙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적석총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고구려에서 횡혈식 장법이 도입되는 과정은 3세기 후반~4세기 초반의 도입기와 4세기 중엽 이후 횡혈식 장법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단계로 구분된다 [그림 7]. 첫번째 단계는 전통적인 묘제인 목곽적석총에 횡혈식 장법인 목실과 전실 및 석실이 채택되는데, 집안지역에서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추가장이 가능한 목실과 전실, 석실이 등장하고, 낙랑과 대방의 고지인 서북한지역에서는 벽돌 대신에 석재를 사용한 석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횡혈식 장법은 연도와 현실, 천장부를 모두 갖춘 완벽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횡혈식 장법이라는 관념의 수용을 보여준다. 두 번째 단계는 4세기 중엽경으로 연도와 현실 및 천장구조를 갖춘 완벽한 구조의 석실이 등장하고, 4세기 말 이후에는 황해도 일부 지역의 전실분을 제외하면 전면적으로 석실분이 확산하고, 묘실 벽화가 채택된다. 이후 6세기 이후에는 고구려 전역에 걸쳐 봉토석실분이 축조되며, 묘제의 제일성이 확인된다(강현숙 2011: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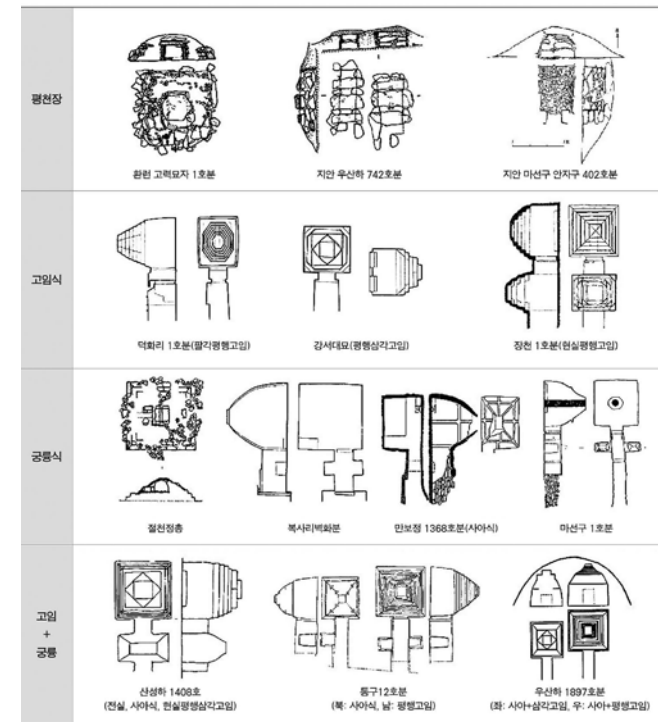
봉토석실분은 지상에 석실을 구축하고 방대형의 봉토 분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묘제이지만, 석실의 축조재료와 평면 형태 및 석실의 수, 천장가구 등에서 매우 다양한 구조를 보인다. 석실을



축조하는 재료는 다듬어진 할석이 주를 이루지만 일부 대형분에서는 1매 또는 수 매의 커다란 석재를 이용해 벽면을 축조하기도 한다. 석실의 수는 단실과 쌍실, 다실 등 다양한데, 4~5세기대에는 다실분과 쌍실분 및 단실분이 공존하지만 6세기 이후에는 단실분이 주를 이룬다. 또한 석실분은 추가장을 기본으로 하는 구조이지만 중소형 고분에서는 하나의 봉분 안에 여러 개의 석실을 축조하는 동분이혈식 구조가 채택되기도 한다. 현실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 장방형, 방형, 횡장방형 등이 있는데, 횡장방형은 소수만 확인되며, 대체로 장방형에서 방형으로 변화된다. 동분이혈식의 세장방형 묘실의 경우 폭이 좁아 합장이 불가능한 형태이며, 추가 합장을 위해 묘실의 폭이 넓어진 형태의 장방형 및 방형이 사용되고, 횡장방형의 경우 3인을 합장할 수 있는 정도로 현실 폭이 확장된 것이다(강현숙 외 2020: 그림 V-29 참조). 쌍실분의 경우 연도는 전실 중앙에 위치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단실분의 경우 묘실의 좌, 우 또는 중앙에 배치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중대형의 위계가 높은 고분의 경우는 중앙 연도가 주를 이룬다.

봉토석실분의 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천장가구를 들 수 있는데, 평천장, 고임천장, 궁륭천장, 고임식+궁륭상천장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그림 8). 평천장은 1~수 매의 판석을 덮어 마감한 형태로 주로 중소형분에서 많이 확인되는 단순한 형태이다. 고임식천장은 고구려 고분의 가장 특징적인 구조로 삼각고임, 팔각고임, 평행삼각고임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궁륭식천장은 위로 갈수록 조금씩 공간을 줄여서 마지막에 1매의 판석을 덮어 마감하는 형태이며, 절천정총이나 만보정1368호분 처럼 위로 가면서 경사지게 공간

을 줄여 쌓다가 급하게 꺾어서 마무리한 사아식천장 등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또한 고임식과 궁륭식천장을 함께 사용한 구조도 있으며, 다실분의 경우 전실과 현실의 천장에 서로 다른 가구방식을 사용한 예도 확인된다. 봉토석실분에서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석실과 천장 가구방식은 시간적인 차이보다는 무덤의 등급에 따른 차이로 보이는데, 횡혈식 장법이 정착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지역이나 피장자의 출신 및 신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장법이 사용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8] 봉토석실분의 천장가구 각종(강현숙 외 2020: 그림 V-30)

## 5. 고구려 고분벽화의 변천과 의미

황혈식의 돌무지무덤과 돌방무덤의 일부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 벽화고분이라 불린다. 벽화고분은 환인과 집안지역에 22기 평양과 안악지방 일대에서 72기가 조사되었는데, 벽화의 내용은 당시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모습이나, 정신세계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벽화는 주제에 따라 생활풍속, 장식무늬, 사신도(四神圖) 등으로 구분되며, 초기에는 무덤 주인의 생활도 위주의 그림이 그려지다가 중기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연꽃을 비롯한 장식무늬와 사신도가 유행하며, 후기에는 사신도 위주로 변화된다.

초기는 3세기 중반에서 5세기 전반에 걸치는 시기로 고구려가 집권 국가체제를 확립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등 크게 발전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벽화가 그려진 고분은 여러 칸의 무덤 방을 가진 구조이며, 벽화는 벽면에 회를 바르고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일명 프레스코화법으로 그렸다. 여러 칸 구조의 무덤은 실재하던 저택의 구조를 모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무덤 방 사이에 기둥을 세우거나, 벽면에 기둥을 그리는 등 실재하던 건물을 충실히 재현하고 있다. 벽화의 내용은 무덤 주인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벽화의 내용으로 많이 채택된 소재는 무덤 주인부부의 모습이나, 사냥하는 장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출타하는 장면 등이며, 마치 당시의 모습을 천연색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무덤 방을 주인공이 생전에 기거하던 저택을 모방하여 만들고, 실제 생활 모습을 묘사한 벽화를 그리는 것은

살아서 누리던 영화를 죽어서도 그대로 누리기를 바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림 9] 안악 3호분 주인공 부부

초기의 벽화 무덤은 평양과 황해도 안악군 지방에 많으며,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벽화고분 등을 들 수 있다. 집안지방에도 씨름무덤(角觥塚)과 춤무덤(舞蹈塚) 등 잘 알려진 고분들이 있다. 지금까지 연대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벽화고분은 황해도 안악군 오국리에서 조사된 안악3호분이다[그림 9]. 이 고분은 1949년에 조사되었는데, 무덤 안쪽에 무덤을 축조한 연대(357년)가 기록되어 있다. 무덤의 외형은 사각뿔 모양의 방대형(方臺形)이며, 무덤의 밑면은 동서 30m, 남북 33m, 높이는 67m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무덤은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는데, 좁은 널길과 문간방을 지나 높이가 2.34m나 되는 두 짝의 돌문을 열고 들어서면 옆으로 긴 앞방

이 있고, 그 좌우에 각각 하나씩의 곁방이 달려 있다. 앞방을 지나면 시신을 안치하였던 널방이 있으며, 널방과 앞방 사이에는 세 개의 8각 돌기둥을 세웠다. 앞방 우측으로는 좁고 긴 회랑을 두어 앞방 뒤쪽까지 이어지도록 배치하였다. 천장은 모두 고임식으로 짜 올렸으며, 4각·8각의 돌기둥 위에는 주두(柱頭)가 있고 그 위에 첨차(檐遮)와 접시받침을 얹어 공포(包)를 만들어 실제 목조건물과 같은 효과를 내었다.

무덤 방 각 벽면과 천장에는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가 그려진 면적은 벽면이 81㎡, 천장이 58㎡에 달한다. 무덤의 주인공 부부는 왼쪽 곁방에 그렸으며, 오른쪽 곁방에는 부엌, 고깃간, 방앗간, 외양간, 마굿간, 차고 등을 그렸다. 앞방의 남벽과 동벽에는 무사들과 의장대, 고취악대, 수박희 장면 등을 그렸으며, 회랑에는 주인공이 행차 하던 모습을 그렸는데, 250여 명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다.

좌측 곁방의 좌우 벽에는 각각 칼을 짚고 서 있는 한 사람씩의 그림과 그 위에 붉은 글씨로 ‘장하독(帳下督)’이라는 벼슬 이름이 쓰여 있으며, 남쪽의 장하독 위에는 먹으로 쓴 70여 자의 명문이 있다. 이 명문을 통해 이 무덤이 357년(永和 13)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무덤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명문의 내용을 주인공에 대한 기록으로 보아 326년 고구려에 귀화한 동수(冬壽)라는 사람의 것이라는 주장과 주인공이 쓰고 있는 모자가 왕만이 쓸 수 있는 백라관이며, 회랑에 있는 행렬도에 왕을 칭하는 성상변(聖上幡)이라는 깃발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왕(고국원왕)의 무덤으로 보기도 한다.



[그림 10] 장천 1호분 예불도

중기는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초반에 걸치는 시기로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던 때이며, 이 때 고구려는 동아시아 4강의 하나로 천하의 중심에 서 있음을 스스로 자부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의 벽화무덤은 두 칸이나 한 칸의 무덤 방을 가진 구조로 바뀌었으며, 벽화의 내용도 무덤 주인의 생활풍속도 외에 사신도나 연꽃을 비롯한 각종 장식 무늬가 뒤섞인 것으로 바뀌었다. 즉, 이 시기에 와서 기존에 유행하던 생활풍속도 외에 불교와 관련된 연꽃이나 도교와 관련된 사신도가 새로운 벽화의 소재로 추가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구려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관념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기의 고분 중 대표적인 것으로 평양 및 안악지방의 것으로는 쌍기둥무덤(雙楹塚)과 수산리벽화고분, 덕화리1호분 등이 있으며, 집안지방의 것으로는 장천1호분과 삼실총 등이 있다[그림 10]. 평양지방의 무덤에는 생활풍속도와 사신도가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사신을 별자리와 함께 천장에 그렸으나, 점차 벽면으로 내려와 벽면 전체를 차지하면서 생활풍속도를 대신하게 된다. 집안지방의 고분 중 장천1호분은 전형적인 두칸무덤으로 두 명의 동남동녀(童男童女)가 연꽃 속에서 화생(化生)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어 유명하다. 이처럼 연꽃으로 표현된 불교의 정토왕생(淨土往生)에 대한 믿음이나 별자리 및 사신그림 등은 무덤이 이전 시기와 같이 단순히 살아있던 영화로운 삶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우주와 같은 관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림 11] 강서대묘 현무도

후기는 6세기 중반부터 고구려가 멸망하기까지의 시기로 귀족연립 정치와 외부 세력의 압력으로 고구려가 위기에 처한 때이다. 이 시기의 무덤은 외칸구조가 대부분이며, 벽화도 돌로 된 벽면 위에 직접 그린 것이 대부분이다. 벽화의 내용 또한 사신도로 통일되어 네 벽면

에 하나씩 그려지며, 천장에는 황룡이 그려진다. 이러한 변화는 사신이 동서남북 각 방위를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덤 주인의 내세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벽화고분으로는 평양지역의 진파리1호분과 강서대묘, 강서중묘와 집안지역의 오회분 5호 및 4호무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고분의 벽화를 통해 화려하고 세련된 고구려 회화기법을 볼 수 있으며, 특히 강서대묘의 현무도는 이 시기 동아시아 회화의 최고 걸작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그림 11].

이처럼 고구려 사람들은 생전의 영화로운 삶을 죽어서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랐으며, 그러한 바람을 고분과 벽화라는 수단을 통해 구현하였고, 우리는 이를 통해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모습이나 정신세계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벽화 내용의 변화를 통하여 고구려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내세관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강현숙, 2000, 석곽적석총을 통해 본 고구려 5부, 『외대사학』 12집.

강현숙, 2011, 「3-4세기 고구려 횡혈식 무덤의 등장과 확산」, 『역사문화연구』 40집.

강현숙, 2013, 『고구려 고분 연구』, 진인진.

강현숙·양시은·최종택, 2020,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2004, 『集安高句麗王陵』, 文物出版社.

김용성, 2005,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북방사논총』 3집.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方起東·劉振華, 1979, 「統一多民族國家的歷史見證—吉林省文物考古工作三十年的主要收穫」, 『文物考古工作三十年』, 文物出版社.

孫仁杰, 1993, 「高句麗積石墓葬具研究」, 『高句麗研究文集』.

신미아, 2011, 「북한과 중국내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관련 주요 쟁점 연구」, 『고구려발해연구』 40집.

魏存成, 1987, 「高句麗積石墓的類型和演變」, 『考古學報』 1987-3.

李殿福, 1980, 「集安高句麗墓研究」, 『考古學報』 1980-2.

張雪岩, 1979, 「集安縣兩座高句麗積石墓的清里」, 『考古』 1979-1.

田村晃一, 1982, 「高句麗積石塚の構造と分類について」, 『考古學雜誌』 68-1.

정찬영, 1973, 「기원 4세기까지 고구려묘제에 관한 연구」, 『고고민속논문집』 5.

주영현, 1962, 「고구려 적석무덤에 관한 연구」, 『문화유산』 1962-2.

陳大爲, 1981, 「桓仁高句麗積石墓的外形化內部結構」, 『遼寧文物』 81-2.

최종택, 2015, 「집안 통구분지 고구려 고분군의 조영과정 연구」, 『삼국시대 국가의 성장과 물질문화1』,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NOTE

Blank lined area for notes.



2015년 7월 8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공주, 부여, 익산에 소재한 8개의 유적이 <백제역사유적지구, Baekje Historic Areas>라는 명칭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기원전 18년에 건국된 백제는 660년 나당 연합군에 멸망할 때까지 약 700년 동안 존속했던 한국의 삼국시대 고대 왕국 중 하나이다. 백제의 수도는 475년 문주왕대에 한성에서 웅진(공주)으로, 538년 성왕대에 웅진에서 사비(부여)로 2차례에 걸쳐 이전되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적들은 백제의 옛 고도였던 한성, 공주, 부여, 익산 중에서 한성을 제외한 백제 후기에 해당하는 3개의 지역에 남아 있는 8곳의 유적이다. 공주에 있는 공산성(웅진성 熊津城), 무령왕릉과 백제왕릉원, 부여에 있는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정림사지, 부여 백제왕릉원, 부여 나성(扶餘羅城), 그리고 익산지역의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이 그것이다.

이들 유적들은 중국의 도시계획 원칙, 건축 기술, 예술, 종교를 수용하여 백제화(百濟化)한 것으로서, 백제의 활발한 문화활동, 주변국들과의 교류 등으로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백제문화의 역량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다음에서 백제의 세계유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1.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유산의 형태는 다양하다. 부동산 유산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석굴암, 종묘, 가야 고분군, 이집트의 피라미드, 남미의 바로크 성당과 같이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갯벌,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 호주의 산호초와 자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들도 있다. 우리는 전자를 문화유산, 후자를 자연유산이라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또 자연유산 위에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유산이 있는데 이를 복합유산으로 부른다. 이들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류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전세계적인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개념으로서 세계유산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의 산하기구인 유네스코는 이러한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이 자국 내 동산이 아닌 부동산 유산 중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면, 자문기구인 이코모스의 평가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여기에서 등재결정이 이루어진 유산은 ‘세계유산’ 불리게 된다.

올해 2023년 9월 10~24일, 제45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려 우리나라의 ‘가야고분군(Gaya Tumuli)’포함, 문화유산 33건, 자연유산 9건 등 총 42건의 유산이 새로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5건이 확장 등재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세계유산은 총 1,199건으로 늘어났는데, 그중 문화유산 933건, 자연유산 227건, 복합유산 39건이다.

우리나라는 종묘, 백제역사유적지구, 갯벌, 가야고분군 등 16건의 세계유산(문화유산 14건, 자연유산 2건)을 보유하게 되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종묘(1995), 해인사장경판전(1995), 석굴암과 불국사(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2002),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한국의 서원(2019), 한국의 갯벌(2021), 가야고분군(2023) 등이다.

이러한 세계유산은 다음과 같은 등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sup>1)</sup>.

[표 1] 세계유산 등재기준

구분	기준	사례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II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우타야 유적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V	특히 번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자연유산	VII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케냐 국립공원,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VIII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제주 용암동굴·화산섬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구분	기준		사례
자연 유산	IX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화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케냐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중국 쓰촨 자이언트팬더 보호구역
공통	완전성(integrity) :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 보유		
	보호 및 관리체계 : 법적, 행정적 보호 제도, 완충지역(buffer zone) 설정 등		

이러한 등재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다음과 같은 등재기준을 충족한다<sup>2)</sup>.

기준 (ii):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고고학 유적과 건축물은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에 있었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룩된 백제의 건축 기술의 발전과 불교 확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기준 (iii):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볼 수 있는 수도의 입지, 불교 사찰과 고분, 건축학적 특징과 석탑 등은 백제 왕국의 고유한 문화, 종교, 예술미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완전성: 유산은 전체적으로 유산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 구성 유산들은 백제의 수도가 지녔

2)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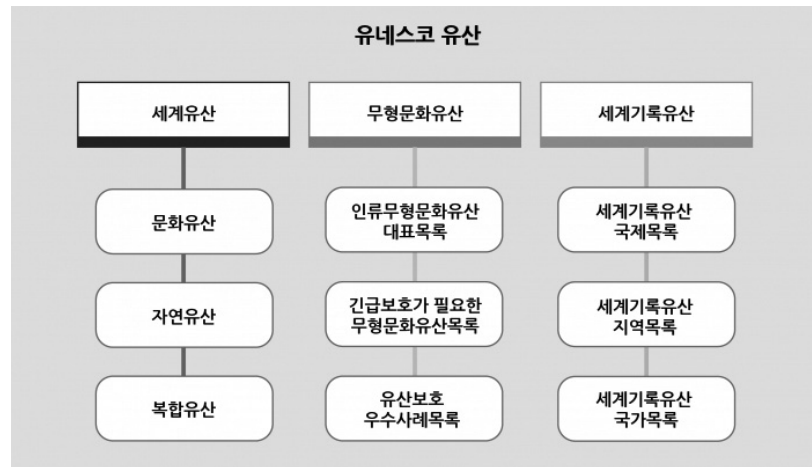
던 역사적 기능을 입증하며, 유산과 해당 유산의 배경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충분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 부소산성 북문 인근에 있는 양수장(揚水場)과 관북리 유적지 내에 남아있는 일부 주거 시설을 제외하면, 나머지 유적은 개발이나 방치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진정성: 연속유산이 분포된 8개의 유적지는 대부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구와 복원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개입에 영향을 받아왔다. 적용된 자재와 기법은 대체적으로 전통을 따랐다. 고분과 사찰은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절터의 경우에는 크지 않은 규모의 도시 개발 지역 한 가운데에 있어서 마치 고립된 섬과 같은 형상이지만 산성과 고분의 경우 산림 경관 내에 숲으로 둘러싸인 원래의 입지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보존 및 관리체계: 유산을 구성하는 모든 유적은 2012년에 개정된 1962년 문화재보호법, 2013년에 개정된 2004년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충청남도(2002년)와 전라북도(1999년)의 문화유산보호조례에 의거하여 사적(史蹟)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유산을 구성하는 유적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완충지역에는 ‘문화재보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도 8m 이상의 건물 신축을 금지하고 있다.

이 유산은 3개의 각 지역별 주민협의회를 조율하는 주민협의회를 통해 수립된 지역사회 단체의 의견뿐 아니라 중앙 및 지방과 지역 자치단체의 의견을 통합 조정하고 있다.

한편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도 등재하고 있는데 다음 표와 같다.



[그림 1] 유네스코 유산(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자료 참조)

## 2. 백제의 역사<sup>3)</sup>

백제는 한국의 고대국가 가운데 한 국가였다.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어 660년 멸망할 때까지 약 700년 동안 31명의 왕이 재위하였다. 백제는 한강유역에 위치한 마한의 소국이었지만, 점차 주변국들을 병합하며 성장하였다. 3세기 무렵 고이왕(재위 234~286)은 관등제도와 법률을 정비하여 중앙 집권국가의 틀을 갖추었다. 4세기 근초고왕(재위 346~375)은 남으로 마한의 최강국인 목지국을 정복하는

등 마한을 병합하고, 북으로 황해도까지 진출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등 강력한 국력을 과시하였다. 또 일본에 아직기와 왕인 등의 학자를 보내 일본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남진정책으로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재위 455~475)이 피살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기에 이르렀다. 이에 문주왕(재위 475~477)은 한성을 버리고 웅진(지금의 공주)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웅진은 서해의 뱃길로 이어지는 금강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방어에 유리한 지역이다. 이후 동성왕(재위 475~501)과 무령왕(재위 501~523)은 귀족세력을 재편하여 왕권을 강화하였고, 중국 남조와도 활발하게 교류하며 갱위강국을 선포할 정도로 국력을 회복하며 중흥의 초석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아들인 성왕(재위 523~554)은 무령왕의 장례를 모시고, 공주에 대통사를 창건하였으며, 538년에는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도읍을 옮기었다. 또 중국의 장인을 초빙하여 신기술을 수용하고, 일본에 불교와 기술전문가를 파견하여 선진문물을 전수하는 등 국제적인 교류와 함께 백제 중흥의 가도를 달렸으나, 신라와의 전쟁 중에 전사하였다. 성왕의 뒤를 이은 위덕왕은 백제의 내실을 다지는데 진력하였다. 부여 왕흥사, 능산리 사지 등이 이 때 건립된 것이다. 이후 무왕(재위 600~641)은 왕권 강화하며, 현재의 익산인 지모밀지에 왕궁과 미륵의 용화 세계를 구현한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660년 의자왕대에 백제는 신라와 당 연합군의 침략으로 도성이 함락되었다. 이어 3년에 걸쳐 치열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으나 내분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국가의 운명을 다하였다.

비록 백제라는 국가는 소멸하였으나, 백제의 문화는 한국의 전통문

3)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보완 정리.

화에 큰 영향을 끼치었다. 고구려·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문화의 핵심으로서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선진문화를 수용하여 이를 다시 수준 높은 문화로 재창출하였다. 이를 다시 주변국들에게 전파함으로써 동아시아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백제가 자리했던 특히 그 왕도였던 지역에 남겨진 유적 <백제역사 유적지구>는 백제문화의 중심지로서 백제의 문화 역량을 담고 있는 문화자원의 보고로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토대가 되고 있다.

### 3. 백제의 세계유산<sup>4)</sup>

#### 1) 왕성, 도성

##### (1) 공주 공산성

공산성은 해발 110m인 공산(公山)의 정상에서 서쪽의 봉우리까지 에워싼 산성으로서 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도 사용되었다. 성벽의 둘레는 약 2.7km, 동서 약 800m, 남북 약 400m이며 성벽이 남아 있다.

4) 백제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http://www.baekje-heritage.or.kr/kr>)의 글들을 주제에 맞춰 편집하여 수정 보완하였음.



성 안에는 백제 당시의 왕궁 건물지와 생활유적들이 있다. 1980년대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어 성의 축조기법과 성 안의 다양한 유적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백제 웅진시기(475~538년)에 축조된 공산성은 백제 이후에도 중요한 거점으로 역사 속에 등장한다. 백제 웅진시기에는 왕성이자 방어성으로 웅진성(熊津城)이라 불렸고, 사비천도 이후에도 중요 거점으로 활용되어 백제 멸망 당시 의자왕이 사비에서 이곳으로 피신하여 항전한 곳이기도 하다. 백제 멸망 이후, 당나라의 웅진도독부가 설치되어 군사령부 역할을 하였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웅천주(熊川州)가 설치되었으며, 신라 말, 김헌창이 공산성을 거점으로 난을 일으킨 장소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이후 충청감영을 공주에 두어 성 내부에 감영이 설치되기도 했으며 조선 중기에는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하여 잠시 머물기도 하였다.

공산성은 백제 웅진시기의 왕성으로서, 성벽 축조에 사용된 판축기법(고운흙과 모래흙을 번갈아 다져서 쌓는 방법)과 벽주건물지(도랑

을 파 기둥을 촘촘하게 세운 후 고운흙으로 벽을 발라 만든 건물지는 고대 중국 및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통한 백제 토목건축 기술의 발전과 전파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2)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은 백제의 마지막 시기인 사비백제를 대표하는 유적이다. 백제는 웅진천도시와는 달리 사비로 천도하기 위해 왕성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도시계획 하에 수행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단행한 단행한 왕이 성왕이었다.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은 1980년부터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북리유적은 백제의 새로운 수도, 사비에 조성되었던 유적이며 확인된 유구의 규모와 특징으로 보아 왕궁터로 추정되고 있다. 관북리유적에서는 대형건물지, 대형 목곽수조, 저장시설, 연못 등이 있다.

대형건물지는 중층 누각건물로 부여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북리유적에서 가장 큰 건물터이다. 익산 왕궁리유적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건물터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익산에도 왕궁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 있었다는 점이 서로 상통한다. 또 4m 크기의 대형 목곽수조 두 곳이 발견되었으며, 수조와 함께 수도관 등의 배수시설이 있었다. 이외에도 나무로 만든 목곽고와 돌로 만든 석곽고 등의 저장시설도 있으며, 그 안에서 야채와 과일 씨앗 등도 확인되었다.

부소산성은 관북리 유적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산성이다. 서쪽으로는 백마강을 끼고 있어 물류 교통과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백제 멸망시 결연한 의지로 자살을 택한 궁녀들의 정절을 보여주는 낙화암도 있다. 계곡을 품으면서 외곽을 두르는 백제시대 성벽, 그리고 그 안에 만들어진 통일신라~조선시대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성 내부에서는 백제~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물지, 석축, 저수조, 목책열 등 다양한 유구가 있어 당시의 생활모습을 살필 수 있다.

부소산성 성벽의 축조방식은 판축기법이다. 이는 한성기 왕성인 풍납토성, 공주 공산성, 부여 나성의 축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 (3) 부여 나성

나성은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 구축한 외곽성으로 방어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수도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상징성을 지닌다. 부소산성에서 시작하여 사비성의 북쪽, 동쪽을 에워싸고 있다. 중국 북위의 수도였던 낙양의 외성도 이와 같은데, 이처럼 수도 전체를 둘러싸는 방어성은 낙양 외성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사례이다. 더구

나 현재 낙양성의 경우에는 성곽의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여서 온전하게 보전된 부여 나성의 가치는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성벽 축조 시기와 축성기술, 문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나성의 6.3km 길이의 동나성 구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백제 사비시기 이전에 도성에서는 수도를 둘러싸는 성곽이 존재하지 않고 왕성과 주변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방어체계가 전부였다. 백제 사비시기에는 기존의 방어체계에 나성이라는 외곽성이 추가되었다. 나성은 방어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성안과 성밖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었다.

나성의 기본적인 건축공법은 판축공법이다. 판축공법이란 흙을 한 켜씩 마치 시루떡처럼 쌓아 올리는 공법이다.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이 공법을 백제의 자연환경의 맞춰 발전시켜 부엽토공법 등도 사용하였고, 백제 멸망 이후에는 백제 유민들에 의해 그 축성기술이 일본에 전파되었다.



#### (4) 익산 왕궁리유적

익산 왕궁리유적은 백제 무왕(재위 600~641)때에 만들어진 왕궁이다. 장방형의 담장시설과 내부의 다양한 건축물, 정원 등의 시설들이 있다. 대규모 토목공사로 높낮이를 맞추는 평탄작업으로 터를 닦았다. 담장 지점은 바깥쪽을 경사지게 깎아 중앙부를 높였다. 이로써 왕궁 내부가 담장 바깥보다 3~4m 이상 높은 대지가 형성되었고, 그 위에 세워진 건물들이 보다 장엄하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1976년부터 왕궁리유적을 발굴하였는데, 왕궁 대형건물지와 주변 전각 건물, 궁인들을 위한 화장실, 공방, 정원과 후원, 후원을 빙 둘러가는 물길 등 다양한 시설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대형건물지는 부여의 관북리유적에서 발견된 2층의 대형건물지와 규모와 구조가 유사하여 정전으로 추정되었다. 또 왕궁 정원이 발견됨으로써 중국-백제-일본으로 이어지는 정원문화의 교류양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정원석 중에는 태호석, 혹은 어린석이라고 불리는 중국산 수석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공방지 남쪽에는 나란히 배치된 대형의 공중 화장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고대의 대형 화장실이다.

이 왕궁은 후에 사찰로 바뀌었지만, 이 유적은 왕궁의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1,400여 년 전 백제 왕궁의 모습과 백제인들의 생활상, 국제적인 교류상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유적이다.



## 4. 종교의 공간 사찰

### 1) 부여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부여의 중심부에 있다. 사비시기 수도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핵심 사찰로 당시의 사명은 알 수 없으나, 사비천도와 더불어 이른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정림사지에서 단연 눈에 띄는 것은 5층 석탑이다. 높이 8.3m로, 목조 건축양식을 석조 건축양식으로 변안하여 쌓은 백제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준다.



정림사지에는 중문, 금당지, 강당지와 그 북·동·서편의 승방지, 회랑지 등이 있다. 회랑에 이은 북·동·서 승방지의 배치는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독특한 모습으로 백제에만 보인다.

사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은 금당과 탑이다. 정림사지는 탑과 금당을 일직선상에 배치한 1탑 1금당식의 전형적인 가람배치를 지니고 있다. 또 건물 기반을 기와로 쌓는 백제 특유의 ‘와적기단’으로 그 위에 목조 기와 건물을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림사지에서는 흙으로 만든 조각들과 토용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중국 북위 영녕사(永寧寺) 출토품과 제조기법과 형태가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고려시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정림사(定林寺)’ 글자가 찍힌 기와도 확인되었으며, 현재의 정림사 명칭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 2)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지는 전북 익산시 금마면 표고 430m의 미륵산 아래에 있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륵사원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미륵사 창건 설화가 전한다. 무왕과 선화공주가 사자사(師子寺)에 가던 도중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미륵삼존(彌勒三尊)이 출현하였다. 왕비인 선화공주의 부탁에 따라 연못을 메우고, 세 곳에 탑과 금당, 회랑을 세웠다는 것이 그 것이다.

1974년부터 이어진 고고학적 조사 결과 사찰의 창건 연대는 무왕 재위기인 7세기 초이고,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하여 폐사(廢寺)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륵사는 백제식 1탑 1금당 식의 가람 3동을 나란히 배치한 3원식 가람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사찰구조는 미륵삼존과 연관지를

수 있으며, 이를 미륵신앙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독특한 사찰구조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본래 미륵사에는 각 원마다 탑이 있었다. 중원(中院)은 목탑, 동원(東院)과 서원(西院)은 석탑이었다. 중원의 목탑이 언제 소실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동·서원의 석탑 중 동원의 석탑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서원의 석탑은 많은 부분이 훼손된 채 동북 측면의 6층까지 남아 있었다. 서탑은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정성이 우려되어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본격적인 해체조사와 함께 다양한 학술조사연구, 구조보강, 보존처리 등을 동시에 시행하여 2019년 7월 말 6층까지 석탑의 조립을 완료하고, 2019년 4월 준공식을 가졌다.

한편, 2009년 서탑의 해체 작업중 1층 심주석에서 사리공이 발견되었다. 그 안에 사리장엄이 안치되어 있었다. 사리호, 금제사리봉영기, 은제관식, 청동합 등 다양한 공양품이 출토되었다. 사리봉영기 판독 결과 639년 사리를 안치하고 서탑을 건립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 5. 사후의 공간 왕릉

### 1)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충남 공주에 있는 백제 웅진시기 왕실의 능묘군이다. 금강의 남안에 솟아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작은 구릉의 동남

향 능선에 고분군이 위치하는데 표고 75m 내외 지점이다. 무령왕릉과 왕릉원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1927년, 1932년에 이루어졌으며, 1971년 고분군의 배수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무령왕릉이 발견되었다.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발견된 백제 무덤들은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과 벽돌무덤(전축분)이다. 1~5호분은 천정이 돔 형태인 백제 전통의 굴식돌방무덤이다. 6호분과 무령왕릉은 아치형의 벽돌무덤으로, 이는 당시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던 형태이다. 이들 무덤들은 백제가 공주로 천도하는 475년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벽돌무덤 2기를 제외한 나머지 무덤들이 모두 굴식돌방무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웅진시기 백제 왕실에서는 이미 굴식돌방무덤에 대하여 형식이나 구조면에서 제도적으로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 왕실 전용의 무덤 양식으로 완전히 정착시킨 듯하다.

굴식돌방무덤은 무덤의 입구인 널길[羨道], 시신을 모시는 나무널[木棺], 피장자의 껌문거리[副葬品]가 함께 안치되는 널방[玄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에는 무덤을 덮었던 거대한 봉분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령왕릉과 6호분은 벽돌무덤으로 아치형 천정, 장방형 묘실, 동·서벽과 북벽에 설치된 등감이 있으며 바닥에는 벽돌을 깔았다. 6호분의 벽화는 벽돌무덤 내에 사신도를 그린 유일한 사례이다. 무령왕릉은 전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굴되었다.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피장자가 무령왕 부부란 점이 밝혀졌으며 이들의 사망과 매장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로써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고분 연구에서 유적과 유물의 연대결정, 고분 피장자를 알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식의 모제이며, 이들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석수, 도자기와 같이 중국유물, 목관으로 쓰인 재료인 일본산 금송, 그리고 동남아산으로 추정되는 유리제품 등 중국과 동양문화의 교류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2) 부여 왕릉원

부여 왕릉원은 사비기 왕족의 무덤군으로서 부여 능산리 나성 바로 밖에 인접해 있다. 고대 백제에서 나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내부 구역은 산자의 공간이었고 그 밖이 죽은자의 공간이었다. 따라서 무덤은 성 밖에만 조성되었다. 평민, 귀족뿐만 아니라 왕실의 무덤까지도 도성 안에는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는데 이를 ‘경외매장(京外埋葬)’이라고 부른다. 왕실의 능묘군인 부여 왕릉원도 나성의 바깥에 위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백제 웅진시기에는 나성과 같은 외곽성은 없었지만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이 수도의 외곽에 만들어진 것도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다.

부여 왕릉원에 대한 조사는 일찍이 1915년과 1917년에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세 가지 형식의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이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백제의 굴식돌방무덤은 천장을 어떤 형태로 마무리했는지에 따라 아치형과 평천장 구조로 나뉘고, 평천장 구조는 다시 단면의 형태에 따라 육각형과 사각형 구조로 나뉘는데, 부여 왕릉원에는 세 가지 형식의 고분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1호분(동하총)은 평천장 구조에 사각형의 돌방무덤이다. 무덤방의 4개의 벽에 회를 발랐다. 회를 바른 벽면에는 사신도를 그려 넣었는데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북쪽에 현무, 남쪽에 주작을 표현하였다. 천장에는 연꽃무늬와 구름을 표현한 그림이 있다. 1호분 벽에 그려진 사신도와 연꽃을 통해 당시 백제인들이 도교와 불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이고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2호분(중하총)은 아치형 구조의 돌방무덤이다. 1, 3~7호분이 커다란 판석을 사용하여 각 벽면과 천장을 구성한 평천장 구조와는 다르게 2호분은 잘 다듬어진 장대석을 사용하여 천장을 터널형으로 쌓았다. 3~7호분은 평천장 구조에 육각형의 돌방무덤이다. 구조와 축조 방식은 1호분과 유사하지만 천장을 반쯤 뒹어 비스듬하게 만든 후 판석을 덮은 구조로 단면이 육각형으로 처리된 것이 특징이다.

백제는 중국식 벽돌무덤의 구조를 수용 후 자신들의 전통적인 무덤 양식에 적용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무덤형태를 만들었다. 부여 왕릉

원에서 확인되는 아치형의 천장에서 육각형, 사각형 천장으로 완성된 무덤구조는 백제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신라와 일본에까지 전해져 고분 건축기술의 교류를 잘 보여주고 있다.

부여 왕릉원은 일찍이 도굴되어 두개골 금동제 장신구 및 허리띠 등 약간의 유물만 수습되었다. 왕릉원 서쪽에서 절터(능산리사지)가 발굴되어 백제 금동대향로(국보)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이 출토되었는데, 이로 인해 부여 왕릉원이 사비시대의 백제 왕실의 능묘군이라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 6.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적 가치



[그림 2] 중국-백제-일본을 잇는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 백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백제 후기(475~660) 문화를 대표하는 유산이다. 웅진시기 공주 공산성,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사비시기 부여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부여 정림사지, 부여 왕릉원, 부여 나성, 사비후기 익산 왕궁리유적과 익산 미륵사지로 구성된 연속 유산이다.

이들 8개 유산은 과거 백제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중국-백제-일본을 이어주는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를 백제 것으로 재창출하여 다시 일본에 전해준 백제의 국제적인 교류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백제가 불교 뿐 만 아니라, 예술, 건축 기술 등을 발전시킨 것이다.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이러한 백제의 문화와 위상을 세계인이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증표이다. 한국문화의 큰 자원으로서 미래문화 창달의 원천 자원인 것이다.





## 1. 들어가며

2023년도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마련한 제26기 가야학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좌로서, 보다 폭 넓은 사고의 확장과 단지 가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세계유산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가진 유럽 지역을 선택하고, 가야와는 시기적으로 훨씬 앞서는 선사시대를 다뤄 본다. 선사시대는 문자 그대로 사전(史前)의 원시시대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남겨지지 않은 시대, 즉 기록을 하는 수단인 문자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를 말한다. 문자는 사회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개개인의 소통 및 각종 교역에 신뢰가 부여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자는 보통 문명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존재한다. 한반도에서 문명화가 완성된 삼국시대의 경우, 중국에서 파급된 한자가 보편적인 문자로 자리 잡으면서 기록의 수단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말한다.

전 세계의 선사시대는 그 개별적인 성격이 모두 다르고, 거기서 드러나는 물질문화의 양상도 각 지역과 시기마다 고유함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한반도는 선사시대가 종료되는 시점을 대략 기원 전후 시기의 전환기인 AD 1세기경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점을 전후해서 각 지역에 다양한 문명화의 증거인 도시국가 및 영역국가가 만들어지며,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주로 다루는 가야도 바로 이러한 도시국가가 상호 연맹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선사/역사시대의 전환이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역사시대의 시작이 곧 문명화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사시대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던 문자 이전의 시대, 즉 문명화 이전의 시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문명화 이전이라는 이유로 선사시대를 ‘야만’이나 ‘미개’라는 표현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문자가 존재하지 않고 문명화 이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사시대의 사람들과 그들이 남긴 문화의 흔적이 모두 다 ‘모자라다’ 혹은 ‘거칠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문명 발생의 한참 이전인 구석기시대부터 인간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의 빙하기를 겪으면서 1)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유산인 동굴 벽화를 남겨 왔으며, 지금의 기술적 수준으로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2) 커다란 돌을 운반해서 거대한 기념물을 만들기도 했다. 그 후 돌을 대체하는 합성물인 금속이 개발되고 활용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을 부양하고 주변 사람들과 때로는 대립하거나 교역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며 바야흐로 3) 도시국가에 준하는 문명화의 초보적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본 강좌는 위에서 소개한 선사시대의 세 가지 국면을 유럽의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사례로서 유럽의 대표적인 세계유산인 프랑스의 동굴 벽화 유적, 영국의 스톤헨지 유적,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유적을 제시한다. 세 유적은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적지이자 관광지이며, 한국 고고학계에서도 흔히 등장하는 익숙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본 강좌에서는 이 세 유적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를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자 이전의 시대, 즉 문명 발생 이전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 2. 프랑스 돌도뉴 지역의 동굴 벽화



[그림 1] 프랑스 돌도뉴 지역의 라스코 동굴 벽화

### 1) 구석기 고고학의 연구

-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인류의 태고시대 관심이 집중 됨  
: 부셰르 드 페르트(Boucher de Perthes)가 북부 프랑스의 솜므(Somme) 강 근처에서 멸종 된 동물뼈와 함께 타제석기를 찾아 냄
- 드 모르티에(G. de Mortillet)의 구석기 연구  
: 프랑스 서남부의 돌도뉴(Dordogne) 지역에서 층위상에서 연속상

으로 나타나는 구석기 문화층을 발견하고 전기-중기-후기 구석기라는 시기 구분을 제시함

- 빙하시대와 네안데르탈인(H. neanderthalensis)의 연구  
: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에 해당하는 고인류(hominid)의 화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이들이 서식하던 구석기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추운 빙하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 냄

### 2) 현생 인류의 구석기 문화

- 크로마뇽인의 발견  
: 돌도뉴 지역의 크로마뇽이라는 읍내에서 석기와 함께 현생 인류의 두개골 발견하면서 구석기 시대의 인류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 냄
- 후기 구석기(Upper Palaeolithic) 시대의 편년과 석기 문화상  
: 마지막 빙하기에 해당하는 약 40,000 BP부터 유럽에 현생 인류가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돌날(blade) 석기와 골각기를 이용한 사냥 기술이 발달했음을 밝혀냄
- 예술의 탄생과 자의식의 발달  
: 후기 구석기 단계의 후반부에 각종 동굴 벽화 및 조각품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이는 본격적으로 예술품이 등장하고 고인류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줌

### 3) 라스코(Lascaux) 동굴 벽화

- 프랑스 돌도뉴 동남부의 몽티냐(Montignac)이란 시골 읍에 위치  
 :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절벽과 지역을 관통하는 베제르 강의 침식으로 인하여 다양한 동굴과 바위그늘이 발달함

- 1940년 9월 12일에 18세의 소년에 의해 발견  
 : 마을 주변의 동굴 속에서 천정에 다양한 동물의 그림이 그려진 것을 발견하고 구석기 고고학 전문가인 앙리 브레이유(Henri Breuil)에게 보고

- 가장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동물상이 등장하는 동굴 벽화로 알려져 있음  
 : 소들로 가득찬 전시실(Hall of Bulls) 및 코뿔소와 사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음

### 4) 폰 드 고프(Font-de-Gaume) 동굴 벽화

- 돌도뉴 지역에서 구석기 유적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레제지(Les Eyzies-de-Tayac)에 위치  
 : 동굴 유적 및 야외 유적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후기 구석기 시대의 인구 집중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돌도뉴 지역에서 최초로 확인된 동굴 벽화 유적임 (1901년 발견)

: 지역 내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드니 페로니(Denis Peyrony)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앙리 브레이유(Henri Breuil)가 채색화 및 음각선으로 표현된 동물 모양의 이미지를 확인 함

- 약 230마리의 동물이 표현되었으며 아직도 발견이 계속되고 있음  
 : 들소, 말, mammoth 등의 빙하기 동물들이 다채색(polychrome) 회화 기법으로 묘사되고 있음

### 5) 돌도뉴 지역 이외의 동굴 벽화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입구가 바닷물에 잠긴 코스케르(Cosquer) 동굴  
 :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Marseille) 항구 주변에 위치하며 1985년에 발견

- 가장 보존 상태가 좋고 가장 선명한 동굴 유적인 쇼베(Chauvet) 동굴  
 : 1994년에 프랑스 동남부의 프로방스(Provence) 지방에서 발견되었으며, 사슴, 소, 코뿔소 및 사자 등의 동물이 묘사 됨

- 피레네(Pyrennees) 산맥에 인접한 후기 구석기 시대 최말기의 니오(Niaux) 동굴  
 : 13,000BP 정도의 연대를 가지며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동굴 중 가장 보존 상태가 우수함

### 6) 유럽 후기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의 의미

- 프랑스 남부 및 스페인의 북부에 집중 분포  
: 알프스 및 북쪽의 대륙 빙하를 피해서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고 동물 사냥이 쉬운 지역으로 집단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멸종된 다양한 동물의 묘사 및 이러한 동물의 사냥 장면을 표현  
: 빙하기 동안 식물 자원의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동물은 사냥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식량 자원이며 동시에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관찰 대상이었음
- 동굴에 거주하면서 잉여시간을 활용하는 구석기인들의 생활 방식  
: 빙하기 동안 한정된 공간 내에서 표현 욕구를 물질로 드러내는 원초적 상태라고 파악 가능

## 3. 스톤헨지와 선사시대 거석기념물



[그림 2] 영국 윌트셔 지역의 스톤헨지 거석 기념물

### 1) 유럽의 거석 문화(Megalith Culture)

- 대서양 연안과 지중해 주변에 각기 다른 형태로 분포하는 선사시대 주요 기념물  
: 신석기 시대 때 부터 일종의 표지석이나 기념물로 사용했다는 설이 지배적임
- 실제 용도는 다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대부분 묘제이지만 집단 행위나 종교 의식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며, 그림자나 태양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천문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도 함



- 축조 기술이나 공법면에서 고고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자아내고 있음
- : 대규모의 인력을 수반해야 하는 노동력, 돌을 깎고 운반하는 기술력 및 방위와 배치에 필요한 기하학적 지식과 축조술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음

## 2) 스톤헨지 개요

- 영국 남부의 윌트셔(Wiltshire)에 위치하는 거석 기념물
- : 거대한 돌을 둥글게 고리 모양으로 배치하고 주변은 다듬어서 넓은 광장의 모습으로 경관을 조성하였음
  
- 영국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유적
- : BC 3000- 2000년 사이에 걸쳐 꾸준히 조성되었으며, 반려암(gabbro)의 다듬은 바윗돌은 약 BC 2400년 경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 됨
  
- 1986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됨
- : 현재 소유주는 영국 왕실이며, 주변의 토지 및 경관은 영국의 국립 역사/자연 보호 재단이 관리하고 있음

## 3) 중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전기의 스톤헨지 축조사

- 최초의 인간 거주는 BC 8000년 경의 중석기 시대에 해당함

: 스톤헨지 축조 이전의 지표 아래층에서 주거지 기둥 구멍과 나무 뿌리 흔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선사시대 사람이 거주했음이 밝혀 짐

- 외곽의 구역 설정 시기(Stonehenge 1기와 2기, BC 3100-2600)
- ① 구역 외곽에 백악기에 형성 된 탄산암(chalk)를 사용해서 약 110m 직경의 원형 돌과 도랑을 설치하고 북쪽에 입구를 남겨두었음
- ② 돌 안쪽에 직경 1m 정도의 구멍("Aubrey Holes")을 여러 개 파서 약 63명 분의 시체를 화장한 후 매장한 흔적이 발견되었음
- ③ 인근의 더링튼 월스(Durrington Walls)에서 발견된 동물뼈를 분석한 결과 약 4000명의 인원이 스톤헨지 축조를 위해 거주하면서 생활한 것이 밝혀짐

## 4) 신석기 시대 후기와 청동기 시대의 축조사

- 본격적으로 돌을 사용해서 거석물을 축조하기 시작한 Stonehenge 3-I기(BC 2600)
- ① 유적 중심부에 약 80개의 돌을 세울 수 있는 두 열의 동심원 구멍(Q와 R 구멍)을 뚫기 시작함
- ② 약 240km 떨어진 웨일즈 지역에서 푸른색 조의 조립현무암(dolerite)를 운반해 왔음
- ③ 북동쪽의 입구는 확장되었으며, 여름과 겨울철의 태양 방향과 정확히 일치함

④ 중간의 제단석(Altarstone)은 약 80km 정도 떨어진 브레콘 비콘스(Brecon Beacons) 마을의 땅속에서 가져왔음

- 사르센석(sarsen)으로 중심부를 축조하는 Stonehenge 3-II기 (BC 2600-2400)

① 약 40km 정도 떨어진 말보로 다운스(Marlborough Downs)에서 대량으로 사르센석을 운반했음

② 장부맞춤 공법(mortise and tenon)을 사용해 기둥돌과 들보돌을 맞추고 직경 약 33m의 원으로 배열

③ 중간 부분에 높이 약 13m의 삼석탑(trilithon)을 말굽 모양으로 5개 배치하였음

④ 사르센석 일부에는 청동기 시대의 무기인 단검과 도끼날이 일부 새겨져있기도 함

### 5) 스톤헨지의 기능과 역할

- 태양 및 달의 방향과 돌의 방향이 관계가 있다는 설이 지배적임  
: 중심부의 U자 모양의 삼석탑 배열은 동지 및 하지의 태양 방향과 거의 일치함

- 모종의 성스러운 의례를 위한 집단 행위 장소이자 제사 장소  
: 스톤헨지는 죽은 자를 위한 장소이고 주변의 더링턴 월스(Durrington Walls) 유적은 산 자를 위한 장소로서, 스톤헨지로 향하는 길은 인근의 아본(Avon)강의 흐르는 방향과 일치 함

- 선사시대 일종의 자연 치료 장소(healing center)였을 가능성  
: 주변에 매장 된 시체에서 병리학적인 질환의 증거가 발견되고 있으며, 매장자들 중 다수가 영국 바깥에서 거주했던 흔적이 밝혀 짐

### 6) 스톤헨지의 역사적/학술적 의미

-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경관이 독특한 선사시대의 거석 기념물

: 한국의 지식묘와 비교할 때 축조 당시 위치 선정과 일광에 특별한 배려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고고학의 방법론적 발달과 함께 다양한 해석이 내려지고 있음  
: 켈트족의 드루이드(Druid) 전설 및 아더왕의 전설과 같은 사변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정밀한 발굴과 엄격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축조 시기 및 방식에 대한 복원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 선사학의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는 시초적 유적  
: 섬나라이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모든 문물이 대륙, 특히 오리엔탈 문명 지방에서 기원했을 것이라는 영국 학계의 선입견을 극복하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잡음

## 4. 중부 유럽의 철기 문화와 할슈타트



[그림 3]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 지역의 할슈타트 유적

### 1) 유럽의 철기 시대 개관

- 동쪽의 코카서스 지방에서 서쪽과 북쪽으로 철기 제련술이 전파 됨  
 : 유럽에서 철기가 최초로 사용되는 시기는 약 BC 1000년 경으로 서, 그리스는 이미 도시 국가 상태에 도달했으며 이태리 북부에서는 빌라노바 문화(Villanovan Culture) 및 에트루리안 문명(Etruscan Civilization)을 통해서 철기 문화가 시작됨

- 무기, 연장, 각종 도구가 청동기에서 철기로 대체되는 시기임  
 : 주조보다는 단조 공법을 통해서 도구를 제작하게 되며 열처리 기

법의 발달을 통한 토기나 기타 다른 물질도 보다 견고하면서 디자인이 화려해 짐

- 매장 방법의 변화

: 청동기 시대에 널리 쓰이던 화장(cremation) 방식은 사라지고 화려한 부장품과 함께 시신을 곧게 눕히는 신전장(伸展葬)이 보편화 됨

### 2) 중부 유럽의 철기 문화 개관

- 할슈타트 문화(Hallstatt Culture, BC 800- 450)

: 중부 유럽 철기 시대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문화로 1846년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에서 발견 된 대규모의 무덤군을 통해 최초로 인식 되었으며, 기존의 청동기 도구의 형태를 모방한 철제 도구 중심의 유물군을 특징으로 함

- 라텐느 문화(La Tene Culture, BC 450- BC 100)

: 주조보다는 단조 공법을 통해서 도구를 제작하게 되며 열처리 기법의 발달을 통한 토기나 기타 다른 물질도 보다 견고하면서 디자인이 화려 해짐

- 켈트/골 족의 문화

: 로마가 성장하던 시기 중부 유럽 전역에서 할슈타트/라텐느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하던 문화로, 그리스어나 라틴어와는 다른 별도의 켈트어를 사용하였으며, 후에 로마 제국 내에 편입되면서 로마화 됨

- 소금의 생산과 교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취락 문화  
: 켈트어로 소금(hall)의 마을(statt)이라는 뜻이며 인근의 잘츠부르크도 게르만어로 소금(Salz)의 동네(burg)에서 알 수 있듯이 선사시대부터 소금의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음
- 할슈타트 A, B, C, D 문화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A와 B는 청동기 문화 시기에 해당하고 C 단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청동기와 철기가 함께 사용되기 시작하다가 D단계에 들어서 라텐느 문화로 바뀌게 됨
- 금속기에 기반을 둔 풍부하고 화려한 물질문화가 주를 이룸  
: 선사시대 사치품 중 하나인 소금을 주요 매체로 해서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 한층 더 정교하고 사치스러운 금속 유물과 생활 유물이 발견되고 있음

### 3) 할슈타트 호수와 할슈타트 박물관

- 오스트리아 잘츠카머구트(Salzkammergut) 지역의 할슈타트 도시  
: 소금 광산의 폐광과 함께 마을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오히려 작고 아름다운 이미지 때문에 매년 마을 거주민의 1만 배를 능가하는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
- 할슈타트 호수(Hallstatter See)  
: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 내린 다양한 호수가 부근에 위치하며, 그림

- 과 같은 절경 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이자 휴양지임
- 할슈타트 박물관(Hallstatt Museum)  
: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후 생긴 박물관으로 소금 채광을 주로 하면서 생활하던 할슈타트 문화의 거주민들이 남긴 유물을 주로 전시하고 있음

### 4) 할슈타트 유적과 소금 채광

- 유적의 발견과 발굴  
: 1846년 합스부르크 왕국의 소금 채광 엔지니어인 요한 게오르크 람자우어(J. G. Ramsauer)가 광산 주변의 철기시대 공동 묘지를 발굴하고 그 기록을 정확한 수채화 도면과 함께 남김(Ramsauer Protokoll)
- 소금 채광의 본산지  
: 바닷가가 아니면 구하기 힘든 암염이 매장되어 있어서 BC 5000년의 신석기 시대부터 꾸준히 채광되어 왔으며 BC 1500년 경부터 체계적으로 채광 시설을 건설해 왔음
- 할슈타트 소금 채광 전시관(Hallstatt Salz Welten)  
: 20세기까지 꾸준히 채광되던 할슈타트 지역의 소금 채광 역사를 관광 코스로 개발해 놓았음

### 5) 할슈타트 유적의 역사적 의미

- 농경보다는 소금 채광과 교역에 중심을 둔 선사 문화  
: 한정 자원인 소금을 취급하면서 그리스 및 알프스 너머 이탈리아까지 교역을 하였고, 선진 기술인 철기 제작술을 일찌감치 받아 들임
- 켈트족 기반의 내륙 유럽 토착 문화  
: 그레코-로만 스타일의 지중해 해양 문화 기반이 아닌, 알프스 산 자락에서 독자적으로 형성 된 문화로서 로마 제국에 점령되기 이전의 토착 켈트족 문화의 일단면을 알 수 있음
- 소금 사업의 쇠퇴를 관광 자원으로 극복한 고고학 콘텐츠의 활용 사례  
: 선사시대 소금 채광 사업 및 때 묻지 않은 천연 자원을 그대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 모범적인 대중 고고학 사업의 일례

## 5.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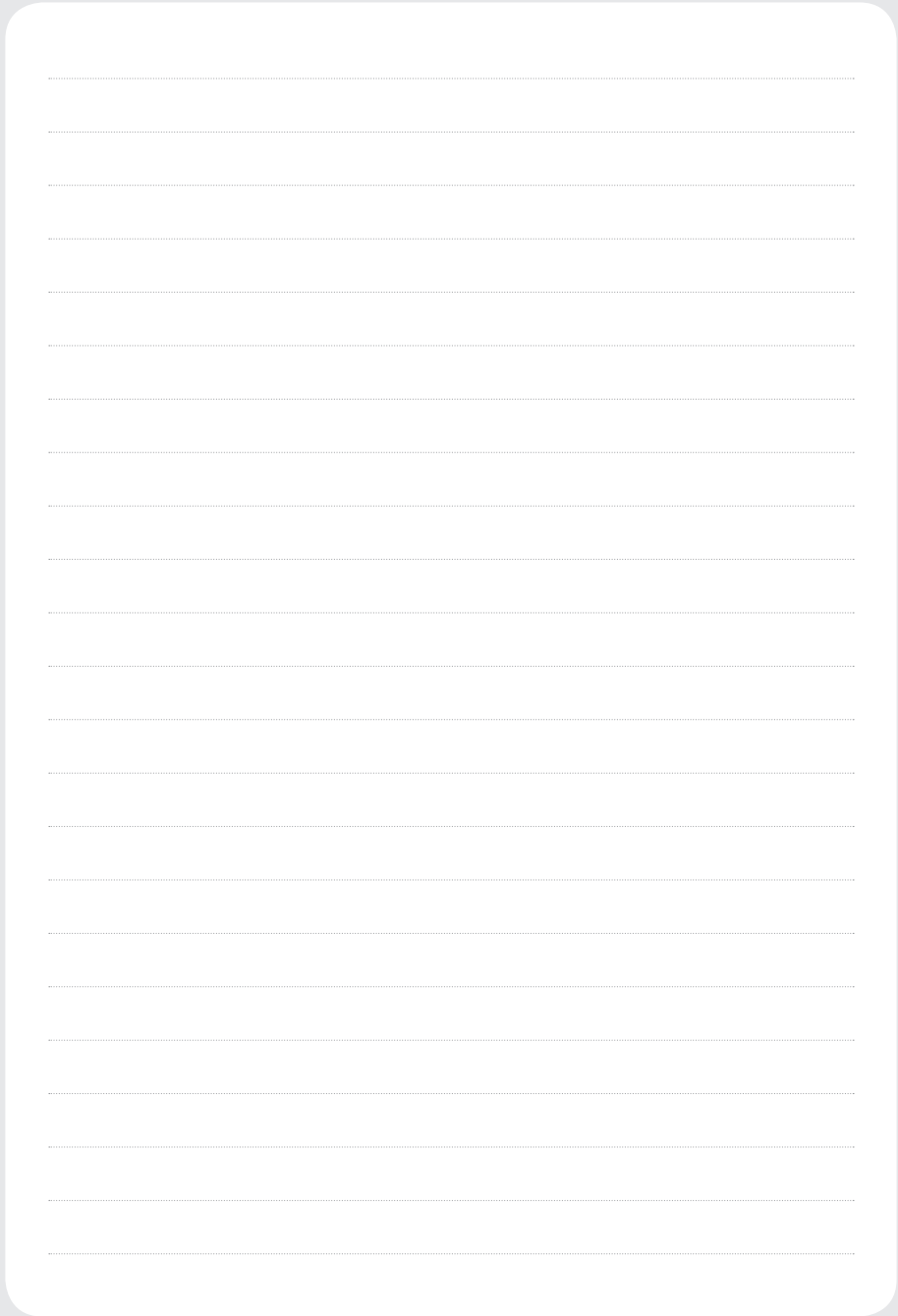
지금까지 유럽의 선사시대 기간 동안 유럽 선사인들이 남긴 다양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개괄하고, 그들 중 세계유산으로 등재 된 1) 프랑스 돌도뉴 지역의 구석기시대 동굴 벽화, 2) 영국 신석기~청동기시

대의 거석 기념물인 스톤헨지, 3) 오스트리아 청동기~철기시대의 소금 광산 유적인 할슈타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유럽의 선사시대에 남겨진 문화적 특징이 한국의 선사시대에도 동등한 수준으로 관찰될 가능성은 없지만 단지 역사 이전의 오래된 문화라고 해서 흔히 언급하는 ‘미개’나 ‘야만’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역사시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고유한 선사인만의 독특함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특히 가야 지역에 해당하는 김해 및 경남 일대의 선사유적 및 유물도 본 강좌에서 살펴본 유럽의 선사시대 세계유산과 흡사한 점이 많다. 일단 한반도에는 동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굴 벽화의 증거는 거의 없지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반구대 암각화같이 당시의 선사시대 생활상을 상세하게 기록한 벽체 예술품(parietal art)이 존재하고 천전리 암각화에는 기하학적 상징 문양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거석기념물로는 한반도 어느 지역을 가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고인돌이나 선돌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특히 산청의 매촌리 유적에는 거대한 고인돌이 군집해서 몰려있으며, 대구 대봉동 고인돌의 매장 시설은 마치 바람개비나 풍차와도 같이 네 방향을 향하도록 배치된 독특한 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할슈타트와 같이 문명화 이전의 준문명 상태에 해당하는 취락 및 마을 유적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천의 이금동 유적을 들 수 있다.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의 과도기에 해당하는 이금동 유적에서는 거대한 의례 중심지로 추정되는 건물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유적과 달리 유적의 규모가 광대하고 다수의 인간들이 한 곳에서 문명 직전의 공동체를 이루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유산에 해당하는 유럽의 선사시대 유적들은 단지 남의 나라 역사에 해당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들도 기록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삶을 살아왔고, 그 삶의 증거를 다양한 물질 자료로 남겨 왔다. 그런 의미에서 가야고분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되는 것은 단지 한국 및 한국인에게 국한된 자랑거리나 이야깃거리만은 아닐 것이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세계 각지의 타인들이 현재 영위하는 삶의 방식이 어떤 역정을 거쳐왔는지 알아본다는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국제적, 그러면서도 타인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통해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세계유산의 의미가 자리잡고 있다.

## NOTE









## 제26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 세계유산이 되었다 |

---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Tel\_ 055) 320-6800 Fax\_ 055) 328-2468

---

**발행일** : 2023년 10월

---

**편집디자인** : 리드릭

**및 인쇄처** 072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6

Tel\_ 02) 3667-4945 Fax\_ 02) 3667-4942

---

